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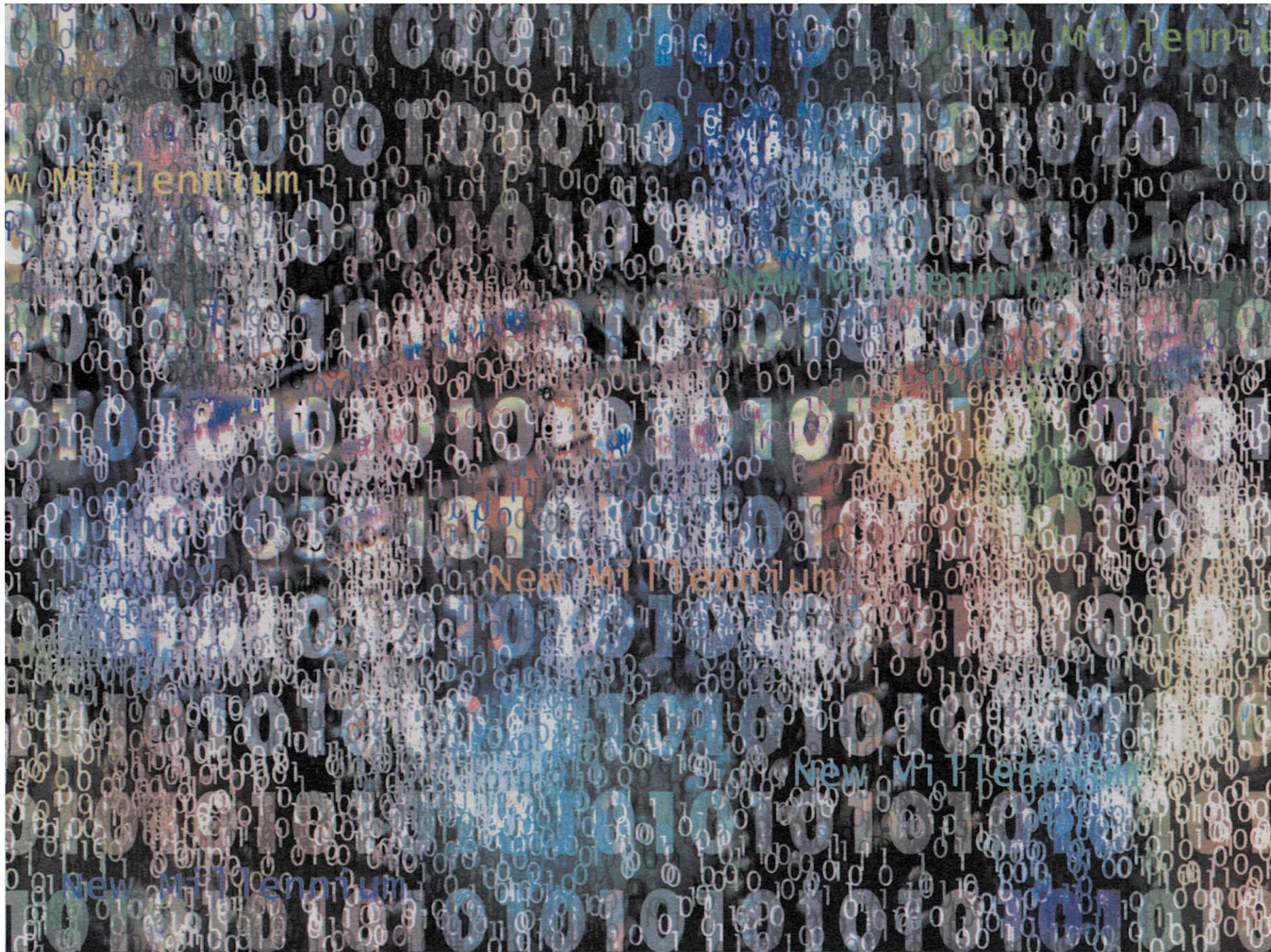
은행지로번호 7500875
http://www.suna.or.kr

제 251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9년 2월 15일

[1]



컴퓨터 그래픽으로 본 새로운 밀레니엄, 찬란하다 朴勝昊(87년 美大卒) 作

관상춘추

요즘 대학 사회가 유난 떨며 대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영어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국제어인 영어를

장악하지 않으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사회에 진출하고 출세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경고가 대학 내에 난비(亂飛)하여 대학생들은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또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새 2000년을 맞아 개인용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더욱 숙달해야 하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공간을 자유자재로 유영(遊泳)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2000년의 생존 경쟁력이 생긴다는 훈계에 대학생들은 심리적으론 시달리고 있다. 영어 구사력과 사이버 유영 능력은 대학생활을 결정하는 풀이말(키워드)처럼 되어있다.

대학생들의 능력 함양에 영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중국 공산혁명의 「도사」(導師)라던 모택동은 서양 것에 적대감을 가졌으면서도 「양위중용」(洋爲中用)이라는 어록을 남겼다. 그는 서양 것을 중국에 활용하려면 영어를 장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실용성을 보였다.

대학 영어와 컴퓨터 2000

한국 대학이 실용과 기능에 입각해서 영어 숙달을 대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아무런 전제가 없이 영어 기능만을 강조하는 대학의 편향한 사고방식을 탓하는 것이다. 왜 모국어는 강조하지 않는가. 대학 교수들이 써대는 논문과 글들은 오문(誤文), 비문(非文)으로 오염되어 있다. 어

떤 평론가는 『메모의 나열에 불과한 광범한 오문의 혼돈』을 탄식했다. 지식산업 영역에 속했다고 자임하는 신문과 방송의 메시지도 온통 오문과 비문 투성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말과 국어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대학 사회와 일반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영어 기능만을 요구하는 것은 본말 전도가 아닐 수 없다.

컴퓨터 활용능력도 그렇다. 대학생들은 컴퓨터를 손가락 끝으로만 다룬다. 컴퓨터 글자판을 손끝으로 두드리는 감각은 빠르지만 손끝이 맵지 못하다. 컴퓨터의 이치와 컴퓨터의 의미에는 까막눈이다. 대학생들은 컴퓨터의 존재가 무엇인지 해석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한다. 대학과 사회가 대학생들에게 손끝의 컴퓨터 숙달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풀이말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국어로 사색하는 방법을 깨우친 풀이말, 컴퓨터 2000년의 문명적 의미를 터득하는 풀이말을 찾아야 할 것이다. (璨)

만든 사람

논설위원 : 金榮國, 孫一根,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東和, 李炯均, 南仲九, 宋鎮赫, 李年憲, 洪性萬, 丘月煥, 李成俊, 安炳燦, 李元復, 柳根榮 편집장 : 安興燮 기자 : 李美連, 金有信 광고부장 : 金千鶴



드리나무광장

법조비리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학교육의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안은 기존의 학부과정인 법과대와 일반대학원의 학부졸업생에게 입학자격을 주는 4+3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기로 하고 졸업생에게는 법무박사학위와 함께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시안은 그 동안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조양성의 방안으로 내놓았던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는 각 2백명 이하로 학부 성적과 수능, 외국어, 논술 등으로 선발하며 동일대학 출신은 50%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안이 법조계의 반대로 무산된 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책으로 요구했던 안과 대동소이하다. 이 안이 법조계의 동의를 얻어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교육부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학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현 대학교육의 병폐를 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비법대생들이 자기 전공은 평개치고 사시준비에만 매달려 전대학이 고시학원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타 전공학문을 살리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관한 학부수업의 부실화가 또한 우려되고 있다.

모교에서도 오랫동안 법과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전환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교수들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 연합의 연장에는 찬성이나 직업전문대학원이 법학연구에는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이었다. 또 모교 졸업생의



金 哲 洙 탐라대 총장

50%밖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교육·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헌법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실이지 사회의 병리현상을 척결해야 할 관·검사, 변호사의 자격시험에 아무런 응시제한이 없는 현 사법시험제도로는 유능한 법조인을 선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대학의 고시학원화가 우려되며, 학문의 불균형 발전이 걱정되는 것이다.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하면 대학에 입학할 필요없이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80%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조인이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다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학교수들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연구의 폭을 넓히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중심교육에 동참해야

하겠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시험선발이 아닌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가져오는 사법개혁의 첫 단계임을 인식하여 전 국민이 이의 관철에 협력해야 하겠다.

(본보 논설위원)

法學教育 改善방향

「한글 專用政策」

국어의 優秀性 허문다

동문칼럼

世宗께서는 1443년 正音を 완성한 후 언문청을 열어 原理 연구의 완벽을 기하는 한편, 보급방법까지도 강구하신 뒤 3년만에 공포하시니 이것이 訓民正音이다. 정음(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바로써 부연할 필요조차 없었지만 創制과정의 완벽성이나 至高하신 성왕의 度量과 語文觀에도 찬탄을 금할 수 없다.

세종은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못하는 까닭에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은지라 내 이를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 여덟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하게 쓰게 할 따름」이라고 親述하신 序文에 정음의 창제 목적을 밝히시고 月印千江之曲과 釋譜詳節 등 저술을 통해서 한글과 漢字의 併記와 混用 등 한글과 漢字를 문장의 목적에 따라 막힘없이 자유롭게 사용한 用例들을 펴보이셨다.

제 나라 신문도 이해 못해

그런데 그 한글에 의존해 사는 우리들의 處事는 온당한 것인가.

光復 이후 국어 정책은 갈팡질팡하면서 漢字사용이 事大主義라 하여 漢字 교육을 배척하였고, 한글 專用論者라야만 愛國者거나 新進 학자인양 대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온지 이래저래 반세기가 되었다. 우리말에 「어머니」「아버지」와 같은 固有語가 있기는 하나 「母親」「父親」과 같은 漢字語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수가 오히려 70%나 되는 국어 현실을 看過한 것이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말의 의미는 애매모호해지고 고등 교육을 마친 成人이 父母의 姓名字를

못쓰고 제 나라 新聞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어 우리나라가 다시 國際적으로 부끄러운 文盲 수준이 된 것이다. 한글 창제로 어린 백성의 意思疏通을 원활케 하려하신 세종께 어떤 명분을 붙여 변명이라도 할 것인가.

「語文 先進國」 기획 놓쳤다

知識·情報化시대에는 知識과 정보를 迅速 正確하게 전달할 수 있는 簡明한 語文이 곧 最高의 國力이다. 그럼에도 창제자가 펴보인 용례까지도 無視하여 풍부했던 한자어휘는 퇴장의 운명에 처하고 우리말의 簡明性, 凝縮性, 視覺性, 辨別力, 造語力 등 특출한 長點까지 喪失케 되었다. 그간 한글 專用의 족쇄 대신에 語文의 自由위에 우리말 다듬는데 힘써왔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語文先進國이 되어 21세기를 自信있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한글 專用은 문맹이 많았던 1950년대에 정치 사회적으로는 정보 共有化에 기여한 면이 있으나, 교육 문화적으로는 국어 退化 이외에도 전통문화 斷絶과 韓民族 正體性 파괴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우리말에서 한글 專用의 족쇄를 벗기는 일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해결할 가장 큰 課業이라고 여겨진다.

朴千緒(60년 法大卒)
한국어문화 상임이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소집 공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1999년 3월 19일(金) 오후 6시 30분

■ 장소 : 하얏트호텔 1층 그랜드볼룸

■ 회비 : 2만원

■ 안건 : ① 1998년도 결산

②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③ 기타사항

* 동창회 제139차·관악회 제77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전 오후 5시에 개최합니다.

* 교통편 - 시내버스 : 79-1, 83, 83-1번 이용

셔틀버스 : 서울역 대우빌딩앞 오후 6시, 6시 15분 2회 운행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 在 淳



李義淑 가정대동창회장

부친·형제·자녀 등 무려 10명이 동문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핵가족화가 일반화 돼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뒷사람이나 동료를 배려하고 생각할 줄 몰라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활한다면 어른을 공경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LG유통 具滋斗부회장의 부인으로 네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李義淑(60년 家政大卒·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 이사·家政大同窓會長)동문이 말하는 자녀교육 성공 비결은 바로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단순한 진리였다.

책 읽는 분위기에 영향

서울토박이로서 경기도지사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李興培(33년 경성제대 법문학부卒)동문의 장녀로 태어난 李동문은 큰오빠인 李喜鍾(57년 工大卒·LG산전(주) 고문)동문과 둘째 오빠인 李殷鍾(58년 工大卒)동문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집안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학생이면 자신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하고, 그래서 성적이 좋다면 그 성적에 맞는 학교를 가는 것이지 특별히 돈을 들여 과외를 한다던가 하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고 李동문은 말한다. 그래서인지 남동생인 李德鍾(65년 商大卒·덕우상사(주) 사장)동문과 여동생인 李鳳淑(67년 美大卒)동문까지 일곱남매 중 다섯

명이 동문인 그야말로 서울大 남매였다. 졸업과 동시에 결혼한 李동문은 자녀들이 하나, 둘 태어나면서 부모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으며, 아이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기 보다 올바른 인간으로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공부하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이에 맞는 책을 많이 읽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에 책을 사다주었죠. 그렇다고 그 책을 꼭 읽으라고 닦달하지도 않았고 읽었는지 검사하지도 않았 습니다. 시간이 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李동문의 마음을 알았을까? 장남 具本天(87년 社會大卒·KDI연구원)동문과 차녀 具惠善(85년 美大卒)동문을 비롯한 4남매는 큰 말썽 한 번 없이 잘 자라 주었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제 몫을 하는 당당한 일꾼이 되었다.

또한 큰사위 沈玄周(78년 工大卒·송실대 교수)동문과 큰며느리 李晟銀(92년 社會大卒)동문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이며 동문 가족으로서의 기쁨을 더했다고 한

다.

이제는 모두들 결혼해 따로 살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다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李동문은 이러한 만남이 가족 간의 사랑을 되새기고 어린 손주들에게 대가족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직장생활과 아이들 챙기는데 바쁘고 힘들 법한데도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선해 李동문은 그저 흐뭇할 따름이라고.

『儉素함으로 집안을 다스리고 恭遜함으로 몸을 닦을 것이며, 아버지 섬김에

孝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忠誠을 다해라. 또한 兄弟間과 宗族사이에는 서로 좋아할 뿐 따지지 말라.』

가훈으로 삼고 있는 이 말은 고종때 정삼품 교리를 지낸 具滋斗부회장의 증조부께서 내리신 말씀으로서 李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에 즐겨 읊는 구절이라고 한다.

검소·공손으로 집안 일궈

굳이 외워서 실천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를 더해 감을 느낀다고 李동문은 말한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생긴 李동문부부는 함께 사는 사회 속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장학생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 李동문 가족의 사랑과 배려를 보며 가정에서의 작은 실천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밑받침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美)



앞줄 좌로부터 다섯번째 李義淑동문, 뒷줄 좌로부터 具本天·李晟銀동문, 두명 건너 沈玄周·具惠善동문.



진주시부

회원 4백명, 산악·바둑·골프로 뚝뚝 뚫쳐

글 : 姜信雄(68년 文理大卒·경상대 인문대학장)총무

진주시부는 1990년 9월 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미 1970년에 비공식적으로 몇 분의 동문들이 모여 초기 진주시부를 결성한 바 있다.

그 후 진주시부는 1972년부터 1990년

까지 각 단과대학별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다가 1990년 6월 18일에 진주시부 재건을 위한 발기인 간담회를 개최, 그 해 9월 20일 지부창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결과로 회장에 鄭元壽(43년 京城高等工業卒)동문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權淳續(49년 師大卒)·金鼎錫(49년 農大卒)·崔振學(55년 醫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총무 감사에 崔友錫(57년 藥大卒)동문 등을 선출, 이로써 진주시부가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의 장을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엔 진주시부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鄭敬泰(59년 醫大卒)동문이 두차례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97년부터 현 회장인 權哲珍(60년 法大卒)동문이 지부를 맡으면서 진주시부 4백여명의 동문

이 참여하고 있는 대가족으로 변모했다.

그동안 진주시부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대표격으로 매년 3월 가족 동반 등산대회가 있으며, 연간 두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현 同會 기금인 1천 5백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동문간의 결속을 재확인하고 다지는 송년회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진주시부는 보다 강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동호회별로의 취미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산악동호회, 바둑동호회, 골프동호회 등의 동호회별 활동 등은 어느 지부 못지 않게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중에서 산악동호회는 거의 매주 산행행사를 진행, 명실공히 동문 친목 도모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1997년 4월 23일에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이 진주시부를 방문, 진주시부 임원들과 의미있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진주시부는 앞으로 아직 등록하지 못한 지역회원들의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해 지역내 봉사 활동에도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보다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앞줄 좌로부터 네번째 權哲珍회장, 둘째줄 우로부터 두번째 필자.

건강을 지킵시다

간질 환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

韓鳳傳(58년 醫大卒)내과의원장



간염이란 간염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이나 알코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간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15%가 간질환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니 얼마나 흔한 질환인가 알 수 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서 웬만한 손상을 입어도 별 증상이 없는 수가 많으나 황달이 있거나 소변이 누렇게 변한다든지 식욕 부진, 피로감, 소화불량, 구기,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30여종이 있으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A형, B형, C형, D형, E형이다. A형, B형은 대부분 급성증상을 나타내고 저절로 회복되나 B형, C형, D형은 급성에서 만성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B형 간염은 가장 흔한 질환이며 일찍이 발견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만성화되는 것으로 B형 간염의 5~10%가 만성으로 진행됨을 본다.

A형 간염은 대개 급성기에서 회복되며 C형 간염은 만성화율이 B형보다 많다. 간염경로는 만성

간염환자의 70%에 달하는 B형 간염과 만성간염의 20%에 달하는 C형 간염의 경로가 비슷하여 주로 혈액이나 정액, 타액 등으로 감염되는데 면도기, 칫솔 등을 같이 쓰지 말 것이며 손톱깎이 등도 같이 쓰지 말 것이다.

간염의 진단에는 혈액검사로 간세포 파괴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황달시에는 담즙색소인 빌리루빈의 증가가 나타난다. 또 간염이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알기위하여 혈액의 바이러스 표식자 검사를 시행하는데 B형 항원이 양성이면 B형 간염환자이거나 바이러스 보균자이며 C형 간염항체 양성인 경우 C형 간염환자이거나 혹은 보균자임을 의미한다.

만성간염이 진행되면 간경변(간경화)이 되는데 손상된 간조직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우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보존요법이 요망된다. 간경화 환자는 과로를 피하고 식이요법으로 고단백 식사와 안정 그리고 간질환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고른 식사요법, 인터페론 요법이 시행된다. 일단 간암으로 진단되면 길어야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에는 간절제술, 화학색전술, 간이식, 알코올주입법, 방사선요법, 인터페론을 비롯한 항암요법으로 수년이상 생존하는 환자들이 적지않다. (한봉전 내과 : 051-469-5005)

추억의窓

늙은 동기생과 함께한 을지로校舍

「소금박사」洪文和교수 강의 못 잊어

權昌鎬(51년 藥大卒)경희대 명예교수

51년 9월에 피난지 부산의 南星여고 강당에서 서울대 약학대학을 15명이 졸업했다. 6·25 전쟁 한달 전 전문부를 졸업한 1백10명도 입학 동기다.

8·15해방후의 사회혼란기를 거쳐 50년 5월까지 3년간을 바쁘게 살았다. 마치 6·25전쟁의 국가적 난국에 전문기능인으로 참여하는데 시간을 맞추려고 했던 것처럼.

재학시절 校舍는 연건동으로 이사하기 전 을지로 6가에 있는 벽돌건물이었다. 처음 1년간은 본관 뒤의 별관 계단식 강의실을 주로 사용했고, 여기에 많은 추억이 남아있다. 1학년 시절엔 약용식물학 실습과 약품분석화학 실습을 많이 했다. 동기생에는 해방전후의 여러 사정으로 대학진학이 2~4년이나 늦은 노장파도 상당히 많았다. 30명 정도의 여학생 중엔 머리를 뒤로 땀아 내린 少女(?)도 있었다.

화학계통의 과목이 많은 가운데, 金俊容교수(모교 공대 명예교수)의 무기화학 강의는 元素의 원자구조로부터 화학적 성질로 이어지는 熱講이었고, 李吉相교수(前연세대 교수)의 분석화학 이론은 약산의 해리(이온화)나 용해적 등을 설명하는데 학생들의 인기와 관심을 모았다.

2학년 때에는 金基禹교수(당시 학장서리)의 유기화학과 洪文和교수의 무기약품 제조화학이 중심과목이었다. 洪교수(당시 朱安의 鹽田시험소 소장) 강의는 황산의 공업적제법을 위시해서

Na화합물, Mg화합물 제조 등이 주요 과제였는데 특히 소금의 공업적 이용 등 소금에 관한 설명을 많이 하였고, 우리들이 洪교수께 「소금博士」라는 별칭을 증정했다. 우리 동기 중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많이 느끼고 졸업 후에도 고마운 은사로 늘 잊지 못한다.

2학년 어느 여름날인가 유한양행 소사공장 견학을 겸해 인천 朱安의 鹽田시험소로 견학을 다녀왔다. 天日鹽 제조공정도 보고 시험소(지금 연구소)내의 食鹽제조의 부산물이용 연구과정도 보았다. 당시 친구들 몇 명이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다. 당시 어려웠던 형편을 보는 것 같다. 洪교수께서도 朱安이란 이름을 못 잊으신다.

필자는 46년에 월남했지만 약대에서 많은 동문을 만나서 51년~53년 전쟁 중에도 대구, 마산, 부산 등지에서 동기동창이 있어 큰 힘이 되었음을 적어둔다.

세계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소금을 거두어들이지만, 아직도 바다의 소금은 줄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주안 염전시험소 견학기념

관악무역인회

동창회 기금 5백만원 출연



좌로부터 金閔鍾회장, 본회 鄭부회장, 黃殷植총무.

동창회 직능지부인 관악무역인회(회장 金閔鍾)가 본회에 발전기금 5백만원을 출연했다.

지난 1월 8일 관악무역인회 제2대 회장 金閔鍾(71년 藥大卒·마성상사 대표)동문과 총무

겸 수석간사 黃殷植(77년 工大卒·재우전자 대표)동문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창회보 편집회의에 참석, 본회 鄭宗澤 상임부회장에게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전달했다.

경원대 李大淳총장 취임

“국내 10대 사학으로 키울터”



李吉女이사장(左)이 李총장에게 교기를 전달했다.

학교법인 경원학원(이사장 李吉女)은 제8대 경원대학교 총장에 李大淳(57년 法大卒)동문을 선임하고 지난 1월 12일 음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黃寅性·李榮德·李壽成 前국무총리, 李漢彬

前부총리, 朴孃實 前보사부 장관, 玄勝一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宋斗灝부회장, 동창회보 孫一根·安炳燦논설위원, 李世震사무총장 등 6백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李吉女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경원대가 국제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새롭고 놀라운 대학으로 변신하리라 확신한다』며 『우리 교육계에 바람을 일으켜 경원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해 내자』고 역설했다.

李大淳총장은 취임사에서 『경원 가족의 힘을 바탕으로 국내 10대 사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대학의 세계화·정보화를 추구하고 인간화 교육을 강화하여 열린 교육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趙宣濟교육부 차관, 閔寬植 前문교부 장관, 趙完圭 前교육부 장관의 축사가 있었다.

캐나다 밴쿠버 지부

崔靑一회장 선출

캐나다 밴쿠버지부동창회(회장 許鍾南)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임원개선에서 신임 회장에 崔靑一(58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李輔潤(64년 商大卒)동문, 섭외이사에 柳東星(63년 工大卒)동문, 총무이사에 崔伸根(65년 藥大卒)동문, 재무이사에 朴榮培(82년 工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에 포상하는 제1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아래 요령에 의해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부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2. 구비 서류: 추천서(소정양식), 피추천자의 공적사한

3. 추천서 접수:

1)접수마감: 1999년 2월 28일

2)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1999년 3월 19일)

1999년 2월 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미술작품

李 春 基 作



「자연 98-19」, 캔버스에 아크릴릭, 1998.

〈작가 약력〉

△60년 모교 미대 회화와 졸업

△61~62년 이춘기·김재임 작품전

△63년 현대작가 초대전

△70~97년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전

△74~77년 서울 '70 창립전 및 회원전

△80년 한국 Drawing 관화대전 초대
출품

△83년 아세아기독교 미술전

△94년 서울정도 600주년기념

서울국제 현대미술제

△94~97년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전

△95년 한국 지성의 표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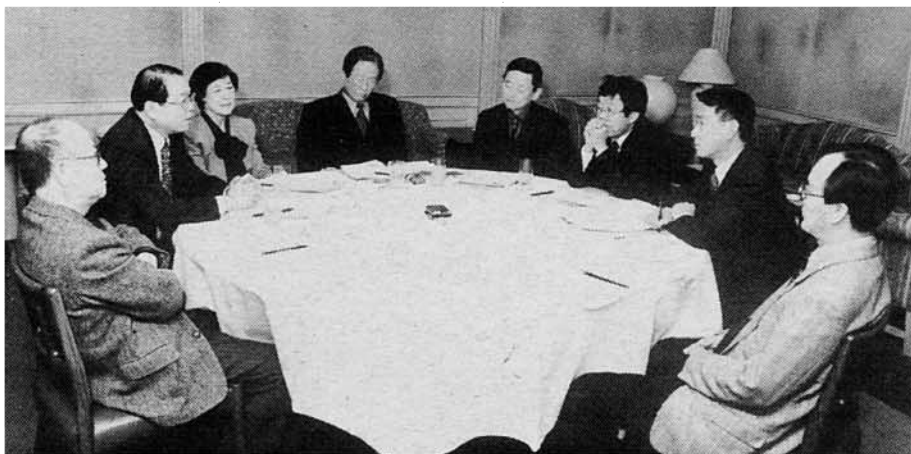
△97년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

△98년 전주대 정년퇴임 기념전

다가올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며
Meet 매거진

다가올 새로운 천년을 내다보며

“서울대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를 열자”



〈참 석 자〉

- 金后蘭(53년 師大入)한국여성문화인회 회장
- 金京熙(61년 文理大卒)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지식산업사 대표
- 金正吉(62년 音大卒)모교 음대 작곡과 교수
- 金文煥(62년 文理大入)한국문화정책개발원장
모교 미학과 교수
- 崔 旻(68년 文理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 李哲洙(72년 文理大卒)한국정보보호센터 원장
- 사 회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보 백상기념관장
본보 논설위원

사 회: 새로운 천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New Millennium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과연 2000년은 어떤 세기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실로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한 가슴 설레기도 합니다.

세상은 물론 국내 매스미디어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요란한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소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소개하기도 하고, 2000년을 맞아 거행되는 각국의 이벤트 계획을 예로 들며 우리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보도 근 10만부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特殊紙지만 아주 알찬 Community Paper로서 이 문제에 관해 비켜 갈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1월 8일 거행된 편집회의에서 각계의 대표적 동문을 모시고 밀레니엄에 관한 좌담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몇몇 동문께서는 개인 사정상 불참하셨지만 한국여성문화인회 金后蘭(53년 師大入) 회장을 비롯해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매체와 똑같은 복사판적인 21세기 전망은 별로 큰 의의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질문이나 주제를 가지고 좌담회를 진행하기 보다는 다른 매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차별화된 이야기를 설문에 구애받지 않고 방담식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원래 밀레니엄은 우리의 체험과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 미지의 시간대라 생각합니다. 자신과 연관된 분야를 비롯해서 다가올 천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文煥: 18세기 이후의 문명은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 자연과 인간을 이용하려는 면이 강조된 도구주의적 방향으로 발전

되어 왔습니다. 후기산업사회 이후에도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누그러들지 않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세까지 연장시켰으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를 기준으로 인생의 한고비를 계산해 왔지만 앞으로는 80세가 그 기준이 될 것이며, 개인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등 고령화 사회의 여러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는 이러한 고리가 깨끗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사 회: 앞에서 이미 언급하셨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에서 인



孫一根 동문

매스미디어 존재양식이 큰 문제돼 정보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탈바꿈



金后蘭 동문

창조적 문화교육·윤리의식 필요 “문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金后蘭: 21세기에는 문화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창조적인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윤리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감증에 젖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구의 고령화와 교육의 존재 양식 등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세계의 모든 대학이 각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교류될 것이며,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간이 기억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이전되면서 여러 학문이 제후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지만 정보·문화에 주력할 수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正吉: 우선 음악분야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20세기말

의 음악은 다원화 현상으로 다양한 기법과 장르가 복합적으로 뒤섞이고 기존의 것을 인용하는 경향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특히 최근 서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고유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유의 악기를 서양의 평균율로 조율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악기를 가지고 베토벤의 심포니를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이는 전통과 세계화의 흐름에 어긋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분음과 같은 서양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고유 음률을 순수하게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金文煥: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것이 요즘 절에서 들을 수 있는 찬불가나 교회의 찬송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金正吉: 좋은 지적입니다. 요즘 교회의 찬송가나 절에 가서는 찬불가나 성당에서 듣는 성가곡이나 모두 같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음악적 혼돈 즉, 클래식·팝·재즈·민속 음악이 뒤섞여서 전혀 장르가 구별되지 않는 경향은 정리되고 차별화될



金文煥 동문

것으로 봅니다.

金后蘭: 사실 음악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너무 서양쪽을 바라보고 달려온 경향이 많았습니다.

金正吉: 요새는 거꾸로 서양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한국적으로 음악을 만들 수 없을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악은 국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새로운 음으로 엮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哲洙: 현재 우리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은 문화의 창조에 의해 만들어지며, 21세기 각국의 GDP의 증대는 이러한 지식과 문화에 의한 3차산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산업으로 꼽고 있는 인터넷의 경우 전세계 인구중 불과 10%만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에 의해 국가의 이익이 결정된다면 21세기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터넷 세대가 주력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지식산업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를 지식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金文煥: 영화「포세이돈 어드벤처」를 보면 거꾸로 침몰한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주인공들이 배의 밑바닥을 향해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선 새로운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 가치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보전이 필요하며, 이

고령화 사회위한 다각적 대비절실 전통 문화의 연구·보전이 급선무



金京熙 동문

한글의 우수성 알리는 기회 늘려야 「언어문자기록 박물관」 건립하자

를 새로운 세기에 맞게 전환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디어가 갖고 있는 기술이 문화와 전통에 얼마나 잘 결합될 수 있는 지 의문스럽습니다.

사 회: 요즘 각종 매체에서 밀레니엄 버그(Y2K-2000년 표기 오류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와 노력은 얼마만큼 진전돼 있다고 보십니까?

李哲洙: Y2K는 크게 컴퓨터와 관련된 전산기기 문제와 일반생산 및 기계, 시설 장비 등 컴퓨터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중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는 약 5년전부터 준비를 해왔으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전산분야로 우리나라의 비전산분야 관리자들의 상당수가 Y2K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시설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외 생산 원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오래된 시설 중에는 생산 원천자 및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 및 각 기관에서는 분야별 산학협동 대책반을 조직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 旻: 기술적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성과 세대간의 갈등을 비롯한 많은 봉건적 사회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과의 격차 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21세기의 전망과 19세기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특히 金后蘭동문의 말처럼 교육과 도덕성의 회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올바른 공공의식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金京熙: 지난 천년, 종교의 지배를 받던 중세에서 시민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근대인들은 피와 땀을 바쳐 혁명을 일궈냈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와 기회균등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1960년 이후 발명된 컴퓨터는 인류의 또다른 해체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붕괴

된 이후 이미 문화적 시간은 21세기에 진입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속에서 우리 민족이 21세기 문화의 등대로 계속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서양 흥내내기에서 벗어나 잊었던 전통을 발굴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영어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의 민족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의 한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京熙: 최근 미국의 「World



金正吉 동문

서양음악에 없는 고유 음률 발전

동문 역량 발휘할 멋진 축제 기획

Future Society」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향후 30년 안에 현재 인류언어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글은 민족문화의 최대 유산입니다. 우리 말로 된 좋은 문학작품이 희곡과 시나리오로 재생산되고 이것이 다시 좋은 영화의 기본 재료가 됩니다. 즉, 한글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문화를 살리는 근본입니다.

사 회: 우리 것의 존중함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상면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새로운 유토피아론인양 각광받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입니다. 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茶山의 실용주의 철학이나 전래의 중용철학과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동양 회귀의 붐이 일고 있는데

다가오는 21세기, 전통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崔 旻: 종전에 소수 언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셨는데 이미 영상분야에서는 허리우드의 독점체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회복돼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전통의 존중과 문화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金后蘭: 앞으로 문화도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사이버 소설 등 새로운 실험과 세계를 보여주는 시도는 계속 되겠지만 우리 정서에 맞는 문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金正吉: 영화 음악을 작업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 영화 음악은 8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고 무언가 결여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가 다원화되고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개별의 종이 확고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러한 개별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文煥: 대학도 앞으로는 학

올바른 공공의식·도덕성 회복 시급

모교, 지역문화 형성에 앞장설 때

문간의 벽을 없애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교는 기초과학의 이해와 학문간의 다차원적인 접촉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모교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라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과 기획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 회: 지적하신 것처럼 여

패러다임이었다면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정보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라 봅니다.

金正吉: 국가적 차원에서 2천년을 맞이하는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교에서도 지난 20세기와 다가올 21세기를 맞아 우리의 역량을 집약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많은 예술가를 비롯해 각종 인물을 배출한 모교와 동창회가 나서서 21세기를 맞는 멋진 축제를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金后蘭: 최고의 인재와 두뇌



崔旻 동문

가 모인 모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이는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시적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례화하여 국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맡을 수 있는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사 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비롯해 이제는 대학 교육의 존재 양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哲洙: 이제는 학교의 지명도보다 어떤 교수의 강의를 더 좋은가 등을 따져 학생들이 선택하는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교가 21세기에도 최고의

런 면이 오히려 21세기적 인간형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崔 旻: 모교도 이제는 관립대학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교내 문화는 물론 학교주변을 아우르는 대학촌 나름의 문화도 형성돼 있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 모교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金京熙: 21세기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모교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언어문자기록 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의 우수한 문화적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 회: 결국 새로운 세기에는 남북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金文煥: 통일과 연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북이 지난 50년동안 서로가 달라진 점을 인정하면서 과거지향적인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동질성 창출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아는 관용적 태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哲洙: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21세기를 바라보는 방향과 목표를 확고하게 확립해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 회: 이 자리를 마감하며 우리는 몇 가지 문제와 제안을



李哲洙 동문

인터넷 세대 활약할 무대 많아져

산학협동으로 Y2K문제 해결될 것

대학으로 남기 위해서는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金文煥: 동창회에서든 이론바 성공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기 보다는 21세기에는 소외되고 음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사 회: 새로운 세기를 맞아 동창회도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타 대학 동창회에 비해 우리 동문들은 개별성이 강한 편인데 이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모교가 중심이 되어 문화 축제를 갖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둘째, 고향화 사회에 대한 다각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활자매체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존재양식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전통에 대한 각 부분의 관심과 보전이야말로 문화와 정보의 세기를 맞이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는 분명히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모교와 동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디자인 세계, 전통문화 독창성이 좌우

金芝希(63년 美大卒)대구효성가톨릭대 디자인대학원장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민족정신의 확립없이 경제 대국의 길만을 향해 줄달음질 쳐왔다.

우리들 스스로의 자각 속에 우리 것에 대한 금지감을 심어주기도 전에 서양미술, 서양음악이 먼저 유입되었고 우리의美는 소박미, 애환의 미, 우리의 색은 백색 우위의 백의 민족으로, 우리의 예술은 소극적이기만한 편견의 왜곡된 한 부분만으로 고정되어온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외래 문물은 여과없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귀한 유물들은 사정없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전통문화는 단지 옛 것이고 진부한 것으로만 느껴 왔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21세기가 다가와서야 전통문화를 연구하게 되고 그 관심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것에 대한 금지가져야

79년도 필자는 일본 유학시절에 그들 자국의 전통 교육의 실시를 보며 그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최근 대구시와의 자매

결연행사가 열린 밀라노시를 방문했을 때와 태국·대만에서의 학술 강연 및 천연염색 교류시 외국에서의 경험을 몇 자 기술하고자 한다.

밀라노시 꼬모의 섬유디자인 박물관에서는 섬유의 누에치기, 천연염색, 사라사의 각종 기법부터 현대의 섬유산업까지를 고대·중세·근대·현대까지로 정리하여 진열해 놓았다. 또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현대 후손들의 삶에 밀알이 되고 꽃을 피워 문화의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이태리인 개개인의 가슴에 금지감을 심어주면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다.

이태리와 우리나라의 수출섬유의 예를 들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기술과 디자인이 뛰어나도 하더라도 그 물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것이 아무리 기술력과 미적 수준이 뛰어나더라도 고대로부터의 문헌 및 유물에 근거한 섬유산업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 주는 교량 역할 부재와 독창성이 홍보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그 기술과 미적 수준에 상응되는 대우를 국제사회에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섬유디자인계 의견과 또 『대구에서의 국제 공모전은 대구의 섬유디자인을 해외에 홍보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며, 한국의 제품수출은 문화가 앞서 홍보되어야 한다』고 영국의 섬유디자인 국가자문위원인 피터 맥글로(Petter McCulloch)교수가 말한 내용은 모두 상통되는 내용이다.

또 이태리와 독일의 시계나 공예품 박물관에 가면 고대 것은 물론 흔히 우리들이 쉽게 내버리는 현대의 것까지 진열되어 있고, 보통 슈퍼마켓의 일상생활 용기까지 디자인되어 뛰어난 예술품으로 보인다.

일반 용기, 예술품으로 승화

그리고 필자가 「98 유네스코공예상품 출품」과 「자연적인 쪽염의 부활(Revival of Natural Indigo Dye)」을 주제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세계공예가회(WCC) 아·태지역 쪽염색대회에 한국 발표자로 참가해 「한국의 전통 쪽 염색과 현대까지



의 발전 상황」에 대한 강연을 했다. 당시 우리의 전통 섬유디자인에 대해 몰랐던 각국의 관계자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전통의 소개와 홍보의 보람은 태국 전통 천연 염색 박물관 견학시의 감동과 함께 지금까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조상때부터 숲속의 자연환경 조건에 맞춰 세워진 개인 박물관은 대를 이어 전승되어온 발자취와 염재식물, 염재, 염색 도구, 천연염색직물 등 다른 나라와는 차별성을 가진 독특한 전통 예술 그 자체와 전통성에 세계의 연구자들과 방문객들은 숙연해지고 만다. 무엇보다 강한 힘은 그 민족만의 독창성과 강한 금지감으로 연결된 전통의 역사성에서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술수준이 평준화된 21세기 세계화의 공예 및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술과 감성(美) 그리고 전통문화의 독창성(Identity)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소아과 의사는

아픈 아이 엄마도 돌보아야

尹京愛(85년 醫大卒)윤경애소아과의원장

작

년 겨울에는 한파가 IMF와 더불어 황하니 몰아치더니 새해가 되어 조금씩 봄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개원한지 이제 다섯달, 병원에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실감한다. 초록색의 싱그러움 색깔들이 노란색, 붉은색의 정겨운 색깔로 바뀌더니 다음에는 햇빛의 무채색 톤에서 다시 초록색의 움을 트고 있다. 계절이 소름없이 바뀌듯이 「나도 졸업한지 벌써 14년이 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대학 졸업 앨범에 들어갔던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벌써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고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아이 엄마인 영락없는 아줌마가 되어버린 모습 속에서 지나가는 세월은 속일 수도, 붙잡을 수도 없음을 실감한다.

얼마전 퇴근 무렵에 어떤 엄마가 고등학생을 데리고 급히 병원을 찾아 왔다.

물론 소아연령은 아니지만 급한 증세라고 해서 진찰해보니 「급성위염」증상을 보였다. 시험이 있어 초조하다는 학생에게 처방을 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병이니 너무 염려말라는 당부를 했다. 그 어머니의 초조한 눈빛 속에서 내가 대학 입학할 당시의 우리 친정 어머니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환자 걱정말라 달래보지만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이라 예비고사를 치르고 한달 후쯤 본고사를 다시 보았다. 철딱서니 없이 초조하기만 했던 나는 본고사 공부를 한답시고 서울대 원서제출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정 어머니께 맡겼다. 그때도 시험 철에는 몹시 추웠던 기억이 나고 1, 2교시 시험을 보고 점심 식사후 자연과학대학이 있던 21동 뒤를 서성거렸던 것이 어제일 같은 생각이 든다. 시험을 생각보다 잘 보지 못한 것 같

아 이불싸고 누워서 두문불출했던 기억도 새롭다.

합격자 발표전날, 그 당시에는 신문사에서 합격자를 알려주었는데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던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면서 서울대 입학원서를 내려 관악캠퍼스를 등등설한에 걸어서 올라가다가 그만 얼음판에 넘어져서 무릎을 꿇으셨다고 하셨다. 마침 본고사 시험 전이었기에 혹시나 내 딸이 시험에 떨어질까 우려되는 마음에 이제껏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합격자 발표를 듣고 나서야 보여주시는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니 그때 일이 근 20년전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리며 작년에 어머니의 그 무릎수술을 서울대 병원에서 받게 했으니 이것으로 의대에 들어간 딸이 보답을 해드린 셈인지 아니면 그동안 속을 더 썩여드려 수술을 받으시게끔 만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본다.

자식위해 감춰온 시퍼런 멍

하여튼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는 아픈 아이뿐 아니라 아이 때문에 마음과 몸이 병든 엄마들도 치료를 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우)120-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702-2233, FAX: 703-0755

E-Mail: edit@snu.or.kr

동 정

수 상

▲徐廷旭(57년 工大卒·SK텔레콤 사장)=최근 雲耕 李載濤 선생(前국회의장)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4회 「윤경상(산업·기술부문)」을 받음.

▲韓萬靖(60년 文理大卒·아주대 교수)=최근 대한화학회가 주관하는 제5회 「이태규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됨.

▲李華榮(61년 工大卒·모교 교



▲韓松曄(63년 工大卒·모교 교



▲河權益(63년 醫大卒·삼성서울병원장)=지난 1월 3일 아시아 스포츠의학상을 수상함.

▲李善子(65년 看護大卒·모교 보대원 부원장)=최근 제12회 「보건대상」을 받음.

▲林忠燮(65년 美大卒·모교 객원교수)=지난 12월 28일 우경

수)=지난 1월 14일 제3회 「한국공학상(화학공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韓松曄(63년 工大卒·모교 교수)=지난 1월 14일 제3회 「한국공학상(전기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河權益(63년 醫大卒·삼성서울병원장)=지난 1월 3일 아시아 스포츠의학상을 수상함.

▲李善子(65년 看護大卒·모교 보대원 부원장)=최근 제12회 「보건대상」을 받음.

▲林忠燮(65년 美大卒·모교 객원교수)=지난 12월 28일 우경

문화재단홀에서 제5회 「우경문화예술상」을 받음.

▲朴鍾翎(68년 法大卒·동양화재해상보험 사장)=최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2년 연속 「고객만족 경영혁신 최우수상」을 받음.

▲崔鴻圭(68년 敎大院卒·중앙대 교수)=지난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주관하는 「자랑스런 서울 시민상」을 받음.



▲咸澤英(73년 文理大卒·경남대 교수)=최근 외교안보연구원

에서 열린 국제정치학회 총회에서 98년도 「학술상」을 받음.

▲金玄淑(78년 音大卒·경원대 교수)=지난 98년 12월 11일 오페라홀에서 6인 비평가그룹이 주관하는 제17회 「오늘의 음악가상」을 받음.

▲俞弘濤(80년 人文大卒·영남대 박물관장)=최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간행물윤리상(저작부문)」을 받음.

▲高 晋(84년 工大卒·바로비전 사장)=지난 1월 15일 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12월 신소프트웨어상품 대상」을 받음.

▲夫址榮(84년 社會大卒·월간조선 기자)=최근 제7회 「씨티은행 언론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됨.

이동·선임

▲孫鶴圭(57년 文理大卒·前국회의원)=최근 美 조지워싱턴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교수로 위촉됨.

▲嚴永錫(58년 商大卒·한국경제전략연구원장)=최근 부산 동아대 제10대 총장에 선임됨.

▲金翰中(60년 工大卒·前한국전력연구원장)=지난 1월 7일 대우고등기술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朴世直(60년 文理大卒·국회의원)=최근 한국청소년마을 초대 총재에 선임됨.

▲沈在箕(60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1월 22일 국립국어연구원장에 선임됨.

▲李承坤(60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최근 남북통제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에 선임됨.

▲金鎭泰(60년 商大卒·대우정밀공업 부사장)=최근 대우정밀공업 사장에 선임됨.

▲李光奎(60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세계 한민족포럼 창립총회에서 상임공동대표에 선임됨.

▲金炯壁(61년 工大卒·현대중공업 사장)=최근 현대중공업 회장에 선임됨.

▲白忠鉉(61년 法大卒·모교 교수)=최근 대한국제법학회 신임 회장에 선임됨.

▲沈英輔(61년 醫大卒·가천의대부속 길병원 기획조정실장)=최근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 상근심사위원에 선임됨.

▲趙鏞浩(58년 文理大入·뮤직네트워크 제작상무)=최근 뮤직네트워크(m.net) 전무이사에 선임됨.

▲許 陞(62년 文理大卒·한국소비자보호원장)=최근 1년 임기의 국제통상담당 대사에 임명됨.

▲黃仁吉(62년 文理大卒·아남반도체 사장)=지난 1월 21일 아남반도체 FAB본부 부회장에 선임됨.

▲文益祥(62년 法大卒·현대상선 부사장)=최근 현대물류 사장에 선임됨.

▲韓熙昇(63년 工大卒·강원산업 부사장)=최근 강원산업 사장에 선임됨.

▲朴雲緒(63년 文理大卒·前한국중공업 사장)=최근 LG상사 국제영업담당 고문에 선임됨.

▲崔靑林(63년 商大卒·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26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부회장에 선임됨.

▲李純鎔(63년 醫大卒·인제대 부산백병원 소아과 교수)=지난 1월 1일 인제대 부산백병원 원장에 선임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주간·本報 論說委員)=지난 1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12대 회장에 선출됨.

▲文明浩(64년 文理大卒·문화일보 논설실장)=지난 1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감

사에 선임됨.

▲曹忠煥(64년 法大卒·한국타이어 사장)=최근 전경련 한국·덴마크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에 선임됨.

▲崔相泰(64년 法大卒·한국일보 광고본부장)=지난 1월 12일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정기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임됨.

▲金年棋(64년 商大卒·국민은행 호남본부장)=최근 국민은행 상무이사에 선임됨.

▲徐振錫(64년 商大卒·(주)화승 사장)=지난 1월 19일 (주)화승·(주)화승상사 부회장에 선임됨.

▲宋寬鎭(64년 醫大卒·뉴욕지부동창회장)=최근 미주한인의학협회(KAMA) 차기회장에 선임됨.

▲金文元(65년 文理大卒·한국프레스센터 이사장)=지난 12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를 통합한 한국언론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金學俊(65년 文理大卒·인천대 총장)=최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정기총회에서

2000년 회장에 선출됨.

▲朴楊千(65년 文理大卒·駐루마니아 대사)=지난 1월 13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에 선임됨.

▲李大亨(65년 文理大卒·71년 工大卒·심재건축 대표)=지난 1월 9일 흥사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함.

▲李俊一(65년 文理大卒·중앙대 정경대학장)=지난 1월 4일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에 선임됨.

▲崔圭永(65년 文理大卒·前서원레저 사장)=지난 1월 8일 호텔설악파크 사장 겸 동아건설 특수사업본부장에 선임됨.

▲李鍾敏(65년 法大卒·前국제심판소 심판관)=최근 국민은행 감사에 선임됨.

▲李光政(65년 師大卒·경원대 교수)=지난 1월 20일 경원대 일반대학원장에 선임됨.

▲文憲相(65년 商大卒·前성업공사 사장)=지난 1월 6일 종합금융협회 회장에 선임됨.

▲崔東一(66년 工大卒·SK가스

(10면에 계속)

美 금속재료학회 최우수상 수상

유타대 孫洪鏞교수

미국 유타대학교 금속공학과와 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孫洪鏞(62년 工大卒) 동문이 오는 3월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TMS-AIME의 1999년 「Best Science Award」를 수상하게 됐다.

현재 중국 쿤밍대, 화둥대 명예교수이며 스웨덴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방문교수인 孫동문은 1990년,



1994년에도 같은 상을 수상한 바 있어 TMS-AIME 역사상 제일 많은 수상 기록을 세웠다. (燮)

제2회 「젊은 과학자賞」 받아



安敬源동문



姜錫眞동문



趙潤濟동문



趙敏行동문

지난 1월 12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대 미만의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제2회 「젊은 과학자賞」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安敬源(83년 自然大卒)교수, 모교 수학과 姜錫眞(84년 自然大卒)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趙潤濟(86년 農大卒)연구원, 고려대 화학과 趙敏行(87년 自然大卒)교수 등 4명이 선정됐다.

KAIST 安교수는 94년 MIT대 박사과정중 세계 처음으로 단원자 레이저를 개

발했으며, 姜信沆(53년 文理大卒·성균관대 교수)동문의 자제인 姜교수는 양자군(Quantum Group)의 결정기저 이론에 관한 연구로 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KIST 趙연구원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연구를 통해 인체내 암의 발생·억제를 분자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趙교수는 생체 고분자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燮)

(9면에 이어)



사장)= 지난 1월 14일 SKC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丁 新(66년 文理大卒·駐에티오피아 대사)= 지난 1월 13일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에 임명됨.

▲權炆久(66년 法大卒·LG전선 사장)= 최근 LG전선 부회장에 선임됨.



▲李鎬君(66년 法大卒·前재경부 국제심판소 상임심판관)= 최근 비씨카드 사장에 선임됨.

▲金守彌(66년 商大卒·SK텔레콤 부사장)= 최근 SK옥시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安敬相(66년 商大卒·국민은행 종합기획부장)= 최근 국민은행 상무이사에 선임됨.

▲金寬明(67년 工大卒·LG텔레콤 상무)= 지난 1월 15일 전무이사로 승진함.

▲黃龍植(67년 法大卒·대구시 국제관계자문대사)= 지난 1월 13일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에 임명됨.

▲金秀哲(67년 保大院卒·성형외과의원 원장)= 지난 1월 3일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의료자문위원에 선임됨.



▲權五得(68년 文理大卒·의료보험연합회 관리담당 상임이사)= 최근 업무담당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김.



▲朴性洙(68년 師大卒·모교 교수)= 최근 전주대 제7대 총장에 취임함.

▲鄭桂朝(68년 商大卒·현대종합상사 부사장)= 지난 1월 12일 동서산업 사장에 선임됨.

▲金潤圭(69년 工大卒·현대남북경협사업단장)= 지난 1월 4일 금강산개발(주) 초대 사장에 선임됨.



▲全義進(69년 工大卒·과학기술협력국장)= 지난 1월 24일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에 임명됨.

▲張在龍(69년 文理大卒·前駐베네수엘라 대사)= 지난 1월 13일 외교통상부 차관보에 임명됨.

▲鄭大圭(69년 文理大卒·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최근 남북회담 사무국장에 선임됨.

▲南宮鑣(69년 法大卒·재경부 세제실장)= 최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선임됨.



▲尹增鉉(69년 法大卒·前세무대학장)=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에 선임됨.

▲鄭在龍(69년 法大卒·재경부 차관보)= 최근 성업공사 사장에 선임됨.

▲金弘基(69년 商大卒·삼성SDS 전무)= 최근 삼성SDS 부사장에 선임됨.



▲丁赫鎮(70년 工大卒·환경부 국제협력관)= 최근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 부소장에 선임됨.

▲趙忠彙(70년 工大卒·현대중

공업 부사장)= 최근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金聖宇(70년 文理大卒·前LG전자 상무)= 지난 1월 12일 한국퀵컴 사장에 선임됨.

▲李憲錫(70년 文理大卒·前건교부 기획관리실장)= 지난 1월 17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 선임됨.



▲康允模(70년 行大院卒·前건교부 건설지원실장)= 최근 건설교통부 차관보에 임명됨.

▲金承鎬(71년 法大卒·대신증권 상무)= 지난 1월 17일 대표이사 전무에 선임됨.

▲金在國(71년 法大卒·외교통상부 제1기획심의관)= 지난 1월 13일 외교통상부 감사관에 임명됨.

▲金振杓(71년 法大卒·ASEM준비기획단장)= 최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에 임명됨.

▲李相龍(71년 法大卒·재경부 국제심판소 상임심판관)= 최근 세무대학장에 임명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 지난 1월 12일 고려대학교 교



암회(기별교우회) 제26대 회장에 재선됨.

▲姜河求(72년 師大卒·동아일보 판매국장)= 지난 1월 14일 한국신문협회 판매협의회 회장에 선임됨.

▲李根榮(72년 商大卒·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조사부장)= 지난 1월 20일 충청호남지역 본부장에 선임됨.

▲趙宇鉉(72년 行大院卒·前철도청 차장)= 지난 1월 21일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朴聖勳(73년 文理大卒·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최근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에 선임됨.

▲安鍾云(73년 農大卒·청와대 농림해양수산 비서관)= 지난 1월 15일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朴昌正(73년 文理大卒·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지난 1월 15일 농림부 차관보에 임명됨.

▲李泰健(73년 文理大卒·인하대 교수)= 최근 한국국민윤리학회 회장에 선임됨.

▲鄭榮助(73년 文理大卒·대전시 국제관계자문대사)= 지난 1월 13일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국장에 임명됨.

▲鄭健溶(73년 法大卒·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지난 1월 19일 ASEM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에 선임됨.

▲梁仁模(73년 行大院卒·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최근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에 선임됨.



▲金精一(74년 工大卒·아남산업 전무)= 지난 1월 21일 아남산업 부사장에 선임됨.

▲李壽晤(74년 農大卒)= 최근 창원대 제3대 총장에 재선임됨.

▲金炯基(74년 文理大卒·남북회담 사무국장)= 최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에 임명됨.



▲辛鍾午(74년 師大卒·前삼성전관 이사)= 최근 건강신문사 주간에 선임됨.

▲盧宰圭(74년 醫大卒·모교 교

(11면에 계속)

10년간 63억원 모교 지원

한국장학회 李秀千이사장

한국장학회 李秀千(72년 文理大卒)이사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98년까지 총 34만8천1백55명에게 2천4백6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모교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98년에 무상지급학자금 1억여원(84명), 무이자대여학자금 4백83만여원(4명), 사도장학금 7억2천여만원(9백21명), 농어촌출신 대학생용자금 2천9백여만원(30명)



을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10년동안 모교 재학생 총 1만여명에게 63억8천2백여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올해는 총 7백41명에게 무상지급학자금(58명), 무이자대여학자금(86명), 사도장학금(4백15명), 농어촌출신 대학생용자금(1백82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變)



체르노빌 거주 고려인 아동 격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金莊坤이사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金莊坤(37기 ACAD)(사진 첫 째줄 좌로부터 세 번째)이사장은 지난 12월 1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거주하는 고려인 아동 23명을 올림피아드호텔로 초청,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좋은 체험을 하도록 격려했다.

(10면에 이어)

수)=최근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廉然洁(74년 商大卒·동양시스템 하우스 사장)=지난 1월 12일 동양증권 사장에 선임됨.



▲權五甲(75년 工大卒·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지난 1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직무대리에 임명됨.

▲金宗來(75년 文理大卒·조선일보 정치부장 대우)=지난 1월 13일 사회부장에 선임됨.

▲朴鍾應(75년 文理大卒·LG그룹 상무)=지난 1월 15일 LG텔레콤 전무이사에 선임됨.

▲趙重杓(75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지난 1월 13일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에 임명됨.

▲梁在鎬(75년 法大卒·前양천구청장)=지난 1월 15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됨.

▲李啓安(75년 商大卒·현대 구

조조정본부 경영전략팀장)=최근 현대 자동차부문 기획조정실 사장에 선임됨.

▲李根京(75년 商大卒·재경부 조세총괄심의관)=최근 재정경제부 차관보에 임명됨.

▲李相殷(75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대한전립선학회 제2대 회장에 선임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홍보담당 부사장)=지난 1월 21일 아남반도체 경영지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김.

▲安炳燦(75년 新大院卒·경원대 교수·本報 論說委員)=최근 경원대 중앙도서관장에 선임됨.



▲朴性畝(41기 AMP·前대신생명 사장)=지난 1월 13일 보험개발원 원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工大同窓會長)=지난 1월 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충청도지사 및 각 기관단체장을 초청, 신년 교례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지난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섬유미술작가 20명을 초청, 「表現媒體展」을 개최함.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대학 학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本會 常任副會長)=최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문대학 공업계 교수 연수를 실시함.



▲金英勳(59년 法大卒·송실대학원장·부동산법학회 회장)=지난 1월 14일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제한개발구역 해제와 문제점」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가짐.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시 회장)=지난 12월 29일 부산 국제문화센터 강당에서 「사교육비 지출 실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짐.



▲韓弘淳(65년 商大卒·한국의국어대 교수)=최근 미국 마르키스 후즈후 출판사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에 국제지역학 분야 전문가로 이름이 등재됨.

▲盧炳宜(65년 獸醫大卒·경상대 교수·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지난 1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라오스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자문 활동을 펼침.

▲梁昌國(68년 工大卒·대한전기협회 전무)=최근 장편소설 「방황의 미로」(지구문화)를 펴내 소설가로 데뷔함.

▲林吉鎭(69년 工大卒·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장)=최근 「지속 가능한 시민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변환」(한울출판)을 출간함.



▲金泰勳(72년 法大卒·前서울지법 부장판사)=최근 법무법인 和白의 구성원 변호사로 새로이 업무를 시작함.(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0-1 정곡빌딩 본관 5층, 전화: 596-6000)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本會 副會長)=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선정한 「21세기 주요 인물 6인」중 한명으로 선정됨.

▲金銀河(80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2월 11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가짐.



▲金泰賢(81년 人文大卒·순천향대 교수)=최근 「21세기 문학기론 무엇인가」(민음사), 「19세기 프랑스·독일·러시아 문학」, 「20세기 프랑스·독일·러시아 문학과 또다른 문학」(웅진출판) 등의 공저를

발간함.

▲李素暎(91년 音大卒·건양대 강사)=지난 2월 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金相賢(27기 ACAD·국회의원·ACAD동창회장)=지난 1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현황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가짐. (정리=李美連 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송영찬 군(95년 農生大卒)·오혜원 양=2월 28일 12시30분.

*김진호 군(90년 音大卒)·손영실 양(94년 師大卒)=3월 1일 14시.

*김영일 군(96년 社會大卒)·송영숙 양=3월 6일 14시.

*이규원 군(94년 工大卒)·김소형 양=3월 7일 12시30분.

*이동진 군(94년 法大卒)·강성희 양=3월 7일 14시.

*박주원 군(95년 農生大卒)·노승희 양=3월 13일 12시30분.

*전귀학 군(98년 經營大卒)·신유진 양=3월 13일 14시.

*이점수 군(91년 工大卒)·한은주 양=3월 14일 12시30분.

*김기덕 군(96년 人文大卒)·김미라 양=3월 14일 14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相震 원장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새 모델 창출할 터”

지난 1월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 제10대 원장에 취임한 韓相震(70년 文理大卒)동문을 만나 그 동안의 활동, 운영 방침, 21세기 전망 등을 들어보았다.

—모교 사회학과 교수직을 휴직하면서 「정문연」을 맡은 이유는.

『교수와 정문연 원장 중 양자택일이었다면 교수직을 지켰을 것입니다. 현재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냉전질서·구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새 질서를 향해 거둬 태어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정신적 질서를 구상하는 학문적인 노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 저는 전통문화의 뿌리를 제대로 계승하면서 미래로 더 나아가는 공통의 지적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것을 정문연에서 한번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문연」이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은.

『며칠 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년사」가 간행되었습니다. 다만 정문연은 그 동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전27권), 한국국비문학대계(전85권) 발간 등 주로 국학자료 편찬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장서각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소개되지 않은 고문서를 수집·분류·정리하는 등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학대학원을 운영, 국학자료 해독능력과 현대사회과학 지식을 겸비한 독특한 인적자원을 배출해왔습니다.』

—「정문연」의 현안 문제와 그 해결책은.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원장직이 공식인 관계로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문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우호적인 것이 아니어서 정권의 홍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그동안 자긍심이 결여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팀, 현대사연구소 등 별도로 운영되는 기구가 있어 조직이 방만하고 중복기능이 많았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일중심, 기능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변 연구단체의 이미지가 굳어왔는데.

『그것을 불식시키는 것은 우리의 연구역량에 달린 것이지요.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연구가 아니고 연구진이 스스로 판단해서 상식을 갖춘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연구과제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수행하는 것이죠.』

—「정문연」의 조직은.

『지금까지는 주로 연구중심 조직이어서 교육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학의 세계화란 관점에서 대학원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문연 구성인원은 한국학대학원 교수 55명을 포함,



1백50명이 있습니다. 1월내로 구조조정을 마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구조를 간결하게 정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침은.

『우선 모교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근 20년을 강의한 바 있지만 모교는 학문사이의 벽이 너무 높아 교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사이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내 타학문과의 학문적인 교류가 참 힘듭니다. 이것이 모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수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연구한 분들이 많지만 한국에 대해 관심있는 외국학생이 강의를 듣기에는 너무 한국적입니다. 세계

화시대에 빠른 속도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하고 외국의 똑똑한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그동안 너무 학문과 학문사이의 벽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연구를 개별 학문중심이 아니고 학제간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인문학과 사회학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인문학내에서도 사학과 철학, 사학과 종교학 등이 교류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각자 자기 전공을 좁은 틀에서만 강의하지 말고 타학문과 공동으로 하는 합동강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합니다.』

『모교의 이공계통은 KAIST, 포항공대 등 경쟁하는 다른 모

델이 있습니다만 인문사회계열은 경쟁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정문연이 서울대에 자극을 줄만큼 새로운 실험들을 펼쳐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보고자 합니다.』

—사회학자로서 21세기 미래 사회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앞으로의 시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국가지상주의 시대, 재벌에게 집중되는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필연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구세대 즉,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중추세력과는 구별되는 가치관을 지니고,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 지향적인 시민집단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中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집단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귀한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본주의 철학과 사상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문연에서 이와같은 민본주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서 시민사회의 정신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韓동문 가족으로는 부인 沈英姬(70년 文理大卒·한양대 교수)동문 사이에 韓世熙(모교 정치학과 3년)군과 韓知媛(고려대 신문방송학과 2년)양을 두고 있다.

(變)

KBS아나운서실 朴慶姬부장

프로 근성으로 무장한 언어의 마술사

첫 「대한 뉴스」·피겨스케이팅 중계 진행

KBS 아나운서실 첫 여성부장이 탄생했다.

KBS 아나운서 4기로 입사한 朴慶姬(77년 家政大卒)동문이 그 주인공으로 5년전에도 KBS 아나운서실 첫 여성 차장이라는 신화를 보여줬던 인물이다.

朴동문은 모교 재학시절 학우들로부터 「춘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이는 당시 매우 엄격했던 어머니 덕분(?)에 머리를 한번도 풀지 못한 채, 긴머리를 하나로 따고 다녀 붙여졌던 별명이다.

朴동문은 모교 재학시절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단지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사라는 직업만을 머리속에 생각하고 여성취업이 어려웠던 당시 朴동문은 순위고사에 당당히 2위로 합격, 3월 5일자로 발령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우연하게 KBS 아나운서 시험에 지원, 합격한 朴동문은 그때부터 「교사」라는 직함을 뒤로 한 채 아나운서의 길을 선택했다. 물론 집안의 만류는 실로 대단했다. 그 만류에는 당시 여자아나운서는 결혼을 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사회현실 또한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방송일이 적성에도 맞고, 하면 할수록 흥미를 느꼈던 朴동문은 설사 결혼을 해서 일을 그만두더라도 해보자는 결심을

굳혔다.

朴동문의 아나운서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번은 뉴스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고를 잃어버려 뉴스 시작 1분전까지 찾고, 숨이 차 올라 뉴스를 울면서 진행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격려전화를 받을 때면 이전의 괴로운 일들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특히 朴동문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근성과 프로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대가 불균형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타 직업에 비해 많지 않은 것이 아나운서」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프로그램이 떨어지면 우는(?) 아나운서들을 볼 때면 진정 그들이 프로정신과 근성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 뿌듯하다고 한다.

朴동문은 피겨스케이팅 스포츠 중계 최초 아나운서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뉴스를 진행하는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다니는 인물이다.

朴동문은 자신이 첫 여성부장에 오른 것에 대해 「여성 후배들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줘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고 말한다.

특히 朴동문은 아나운서라는 일에 관해 「아나



운서는 내가 얼마나 방송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시청자나 청취자가 얼마나 잘 전달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언어, 말의 속도, 표준 억양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등의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나운서실내 한국어연구부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朴동문은 「현재 우리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음성언어의 자료가 상당수 부족한 것 같다」며 「이 방면의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채외동포 2~3세대에게 제대로 된 우리말을 가르칠 수 있는 CD-ROM을 만들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현재 朴동문은 KBS-1TV 「935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信)



③1 임광토건(주)

도로·항만·교량 시공, 최우수 건설업체로 자리 굳혀

하수처리장·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사업에도 두각

IMF로 인해 기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로 건설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기업이 있다.

최고의 기술력과 튼튼한 재무구조, 성실한 시공으로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임광토건(회장 林光洙·52년工大卒·工大窓會長)이 바로 그 주인공. 임광토건은 1927년 林회장의 선친이

일제치하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林工務社라는 건설회사를 창업한 이래 70여년 동안 도로와 하천, 항만, 철도 등 각종 건설사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후 1958년부터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林회장은 이 당시 社名을 「임광토건」으로 개칭한 후 우리나라 건설업의 역사를 주도해 오고 있다.

林회장은 「건설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신뢰와 정성을 담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항상 사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영방침에 따라 「임광토건에 일을 맡기면 하자가 없다」는 신뢰를 구축했다.

특히 61년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식산포장」을, 80년엔 「철탐산업훈장」, 87년엔 「동탐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전국 최우수 시공업체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97년에는 건설진흥의 날을 맞아 전국 유일하게 최우수건설업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현재 임광토건은 국내 최대의 장대교인 양수대교(연장 2,180m, 폭 19.5m, 4차선) 및 충무시와 거세도를 연결하는 연육교인 신거제대교(연장 940m, 폭 19.5m,



林光洙 회장

4차선) 등을 시공하고 있다.

이 교량들은 수심이 깊고 조류의 유속이 빠른데다 심한 간만의 차이 등으로 매우 까다로운 여건이다. 하지만 임광토건은 신기술을 적용,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시공을 해내고 있다.

6백여명의 임직원이 연간 3천6백여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임광토건은 전국의 도로·고속도로·교량·철도·지하철·고속철도·항만·건축·주택·플랜트·환경사업 등 국가의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 최고의 시공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임광토건은 분당, 평촌,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 약 2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구증가 및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의 부침이 심한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임광토건이 이러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林회장의 성실한 자기관리와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林회장은 고향사랑과 인재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90년도에는 30여억원을 들여 충북출신 대학생들이 하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북학사를 건립하기도 했으며 장학회를 설립,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기업의 사회성을 보다 강조하는 林회장은 「직원들이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을 바쳐 일하는 일터인 회사가 기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부실해져 이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모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죄악이며, 기업은 협력업체들과 공존공생할 책임이 있다」고 피력한다.

현재 임광토건은 21세기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영종도 신공항 부근에 외자도입을 통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信)



서울 미근동 본사 전경

하와이 지부

崔致德회장 선출

하와이지부동창회(회장 崔致德)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崔致德(63년 法大卒·공인회계사)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申東顯(64년 工大卒)동문, 재무담당에 李仲益(73년 齒大卒)동문, 총무담당에 鄭光秀(84년 社會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지난 1월 19일 본회 金在淳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원」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테니스회 회장에 李仲益동문, 골프회 회장에 朴鍾元(74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조지아 지부

朴喜昌회장 선임

조지아지부동창회(회장 林壽岩)는 최근 5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신입 회장에 朴喜昌(60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金在喆(69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미네소타 지부

朱永徽회장 추대

미네소타지부동창회(회장 朱暢源)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 회장에 朱永徽(58년 農大卒)부회장, 부회장에 任漢慶(67년 文理大卒)총무를 각각 선출했다.

휴스턴 지부

金豐榮회장 뽑아

휴스턴지부동창회(회장 卓順德)는 최근 임원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金豐榮(72년 醫大卒)동문을 추대했다.

최고경영자과정

康奉均동문 특별강연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1월 12일 신라호텔에서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모교 경영대 郭秀一학장 등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孫회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 「경제인으로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넘긴 우리 동문들에게 올해에는 발전과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연사로 초청된 康奉均(69년 商大卒)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뉴 밀레니엄을 위해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 경제구조 개혁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상과대학

동기회 「몽치자·돛자賞」 시상



張회장이 6회 대표 鄭貞淑동문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12월 29일 대한상의클럽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모든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리 사회가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邊衡尹(51년 商大卒·사

회경제연구소장)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신혁명을 거친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생활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문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년 시상하는 「몽치자賞」은 6회, 8회, 19회 동기회, 「돛자賞」은 17회 동기회가 각각 수상했다.

공과대학

李基俊총장 취임 축하연 가저



좌로부터 南基棟·鮮于仲皓·李基俊·林光洙·李長茂동문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11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李基俊총장 취임 축하연 및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林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98년을 지혜와 용기로 극복한 동문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새해에는 모교와 동창회의 무한한 영광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李基俊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은 이제 나

라의 경쟁력과 직결됨을 상기하며 교수, 학생을 비롯한 서울大人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대학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임 동창회장인 南基棟·崔鍾院동문을 비롯해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鄭八道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장, 孔大植경영대학원동창회장, 모교 李長茂학장 등 각계 동문 1백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지부

신임 감사에 金鍾南동문 선임

광주·전남지부동창회(회장 李乃均)는 지난 1월 21일 신양파크호텔 「신양홀」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입회원 소개 및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조선훈 교수인 金惠敬(73년 音大卒)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광주대 교수인 崔德植(81년 音大

卒)·朴美愛(81년 音大卒)동문 부부가 축하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신임 이사인 金容閣(57년 法大卒), 慎克範(68년 敎大院卒), 李泓魯(74년 師大卒)동문의 환영식이 있었으며, 임원개선을 통해 감사에 金鍾南(67년 文理大卒·광주일보 편집국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법과대학

새로 영전한 동문 축하패 받아



좌로부터 徐熾珪·玄勝鍾·李爽熙·鄭宗澤·金許男·金裕盛동문

法科大學同窓會(회장 李爽熙)는 지난 1월 15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B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金許男국회의원, 徐熾珪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玄勝鍾건국대 이사장, 李世中KBS 이사장, 尹世榮SBS 회장, 모교 金裕盛법대학장 등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 새해 인사를 나눴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경제회생 등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작년에 비해 마음이 한결 가볍다」

며 「21세기 세계 속에 웅비하는 모교와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朴相千법무부장관은 새해 인사를 통해 「연초부터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이 발생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새로 취임한 洪淳瑛외교통상부 장관, 李容勳중앙선거관리위원장, 尹載植서울지방법원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간호대학

상호 세배로 신년인사 나눠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1월 6일 모교 간호대 기숙사 1층 라운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楊회장은 새해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고 동문들의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朴貞浩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사 신축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자리에는 특히 金花中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해 李금라 서울시의원 등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로서 세배를 나누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했다.

가정대학

「대학설립 30주년」 행사 준비

家政大學同窓會(회장 李義淑)는 지난 1월 20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다.

朴貞姬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목련회장학생」 이미화(소비자학과)·김진희(아동가족

학과)·정 경(의류학과)양, 「李義淑장학생」 김남주(식품영양학과)양에게 각각 장학금을 수여했다.

同會는 올해 「가정대학 설립 30주년」을 맞아 생활과학연구소 주최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가질 계획이다. (美)

정치·외교학과

새 회장에 具範謨동문 선출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金榮國·姜賢旭)는 지난 1월 15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신년교례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모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혹독한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던

무인년을 보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묘년을 맞이하여 동문 및 가족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具範謨(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역사교육과

신임 회장에 辛永範동문 선임

역사교육과동창회(회장 李存熙)는 지난 1월 2일 교수회관 제2회의실에서 신년식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元淳(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申採湜(성신여대 교수), 尹世哲(모교 교수) 동문 등이 참석했으며, 현 교육계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辛永範(은곡중학교 교



장)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임원진은 유임기로 결정했다.

국어국문학과

새 회장에 李種奭동문 추대

국어국문학과동창회(회장 姜信沆)는 지난 1월 2일 모교 자하연식당에서 신년교례회 겸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李基文·金完鎭(모교 명예교수), 鄭琦鎬(前인하대 교수)동문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동창회 소식지인 「새소식」 제 18호 발간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種奭(언론인)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박사과정에 있는 동문 3명에게 장학금 7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불어교육과

신임 회장에 鄭仁衡동문 뽑아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起台)는 지난 1월 9일 선릉역 소재 「상제리제부페」에서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鄭仁衡(AMC상사 사장)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李京海(동덕여대 교수)·蔡基秉(대전고 교사)·柳子孝(SBS해설위원)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모임



에서 소식지 제12호와 99년도 회원주소록을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배포했다.

사회교육과

새 회장에 曹道根동문 선출

사회교육과동창회(회장직대 曹道根)는 지난 1월 8일 청진동 소재 서울관광호텔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俊文(우리모두복지회 회장), 李胎根(김포대학 학장), 曹圭三(前서울사대부고 교장), 姜湘哲(충남대 명예교수), 李成鉉(유천중 교장), 徐順鍾(서순중회계사무소장), 高景淳(부산외대 교수), 成光元(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崔東煥(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 동문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韓



基彦·李榮基·尹鎔拆명예교수의 신년 덕담 시간이 있었다.

한편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曹道根(인하대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同會 명부를 새롭게 정리, 참석한 동문들에게 전달했다.

포항 지부

임원진 유임기로

『포항지부동창회(회장 尹鍾求)는 지난 1월 20일 로얄시그너스호텔에서 99년도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각계 각층의 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회장 및 임원진을 유임기로 결정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선 2기 포항시장인 鄭章植(73년 商大卒)동문과 신설 포항지방방법원 원장인 金洙學(77년 法大卒)동문이 참석, 동창회 활성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춘천 지부

기금 모금방안 논의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李敏燮)는 지난 12월 30일 춘천 베어스타운관광호텔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년모임 활성화 방안과 동창회 기금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동문 상호간의 교류 확대에 더욱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崔珪圭(前강원도지사), 黃仁政(강원개발연구원장), 林茂龍(강원도 행정부지사), 許 瑄(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沈在嘩(강원도 정부부지사)동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대전·충남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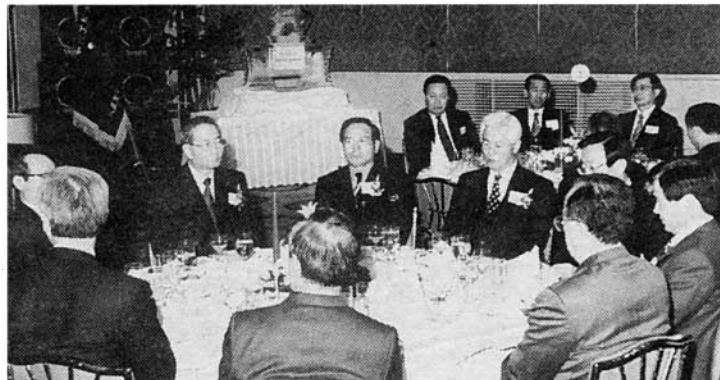
장학금 조성에 박차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熙弼)는 지난 1월 12일 유성관광호텔에서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골프 모임(관악회)의 예산을 더욱 확충, 활성화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또한 회원의 독지에 의한 장학 기금을 조성, 회원 자녀중 각 단과대학 수석합격자와 충남 출신의 모교 재학생중 성적 우수자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信)

최고산업전략과정

새해 첫 학술세미나 가져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八道)는 지난 1월 22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신년하례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일할 곳이 풍족한 사회를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훌륭한

대학의 기반은 동창회와의 협력과 화합 속에 이루어짐을 상기할 때, 앞으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田允喆(65년 法大卒)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래와 경쟁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만평

李元馥



發展을 위한 징검다리

모임예정

약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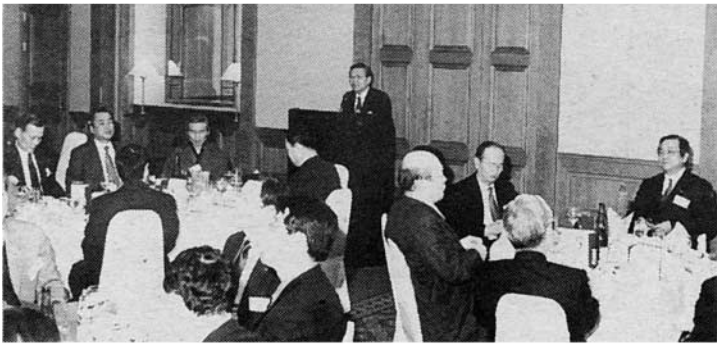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2월 27일 오후 5시 잠실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701-3456)

음악대학

音樂大學同窓會(회장 李南洙)는 3월 1일 오후 5시30분 하얏트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자랑스런 동문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701-1441)

ROTC 동문회

한국경제연구 左承禧원장 강연



ROTC동문회(회장 孫炳斗)는 지난 1월 18일 힐튼호텔에서 신년식을 개최했다.

이날 孫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회원들은 현재 각계 각층에서 유능한 지도자로서 국가를 이끄는 막중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금년 한 해도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同會와

국가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尹昌鉉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左承禧(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동문이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운영 기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 전원에게 열띤 찬사를 받았다.

AMP 43회

매년 정기모임 열기로 의결



우로부터 두번째 廉회장

최고경영자과정 43동기회(회장 廉台燮)는 지난 1월 15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C홀에서 신년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具正謨대구백화점 사장, 朴希駿삼성전자 정보통신본부 사장, 孫善奎前건교부 차관, 梁仁模삼성엔지니어링 사장, 禹昌錄변호사, 李庚雨

삼성카드 사장, 張昶珪前육군사관학교 교장, 鄭永秀(주)서통사장, 崔中根한국수자원공사 사장, 韓成熙前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동문 8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후 매년 정기모임을 열고 친목을 다지기로 협의했다.

교육학과

尹正一회장 선출



교육학과동창회(회장 李相周)는 최근 교대역 부근 「한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宗西(前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朴容憲(모교 명예교수), 李星珍(모교 교수), 李揆澤(국회의원)동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尹正一(모교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信)

훈육회

회원 모집합니다

모교 미대를 졸업한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훈육회(회장 金芝烈)에서 회원을 모집한다.

모교 미대를 1985년 이전에 졸업한 여성 동문으로, 최근까지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훈육회는 매년 정기전과 세미나 및 스케치 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작품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동문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문의: 훈육회 총무 孫文子 전화: 542-5838, 핸드폰: 011-230-5838)

모교소식

학생처장에 金安重교수

연구처장에 朴相哲교수



金安重학생처장

지난 12월 30일자로 학생처장에 사대 金安重교육학과 교수, 연구처장에 의대 朴相哲생화학교실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신임 金학생처장은 72년 사대 교육학과를 졸업, 75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朴相哲연구처장

받았으며 사대 교무부학장을 역임했다.

신임 朴연구처장은 73년 의대 의학과를 졸업, 75년 석사학위, 80년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제노화학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모교 홍보팀 신설

우수학생 유치에 적극 대응

모교는 최근 교무와 기획, 학생 등 학사행정에 정통한 5급이상 사무관급을 팀장으로 한 2~3명 정도의 홍보팀을 만들어 대학홍보업무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모교는 각 대학간 우수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 사이버 女교수

2월에 공개하기로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최근 3차원 입체 애니메이션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사이버 여교수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컴퓨터 애니메이션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캐릭터를 제작중이며, 5개 학과와 6개 학부를 상징하는 사이버 학생 11명을 제작, 사이버 여교수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變)

문화

新刊

■亞細亞女性法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96년 12월 아시아 각 지역의 여성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창립한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소장 裴慶淑·54년 法大卒·인하대 명예교수)가 扶養을 주제로 학회지 창간호를 펴냈다.

이 책에는 黃迪仁 모교 명예교수, 李時潤 명지대 석좌교수, 金哲子 인천교대 교수 등의 논문이 담겨있다.

■여성상담

—李惠星 著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李惠星 (62년 師大卒·「청소년 대화의 광장」원장)등

문이 여성상담에 대한 근본적인 주장을 정리했다.

중년여성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

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여대생의 문제 등을 여러 상담기법으로 제시했다. (정일刊·값8,000원)

■고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새롭다

—李 澈 著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인 李 澈 (79년 人文大卒)등문이 고객지향 마케팅과 고객만족 경영비

법을 소개했다.

이 책에서 李동문은 우리 기업을 구제해 줄 유일한 길은 고객지향 사고로 무장,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현사刊·값9,500원)

公演

■金卿美 피아노 독주회 —3월 5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金卿美(83년 音大卒·명지대 강사)등문이 3월5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金동문은 프로코피에프, 리스트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음악춘추 2233-5901) (變)

동문의 소리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옛날에 유행했던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유행가가 있었다. 몇 년전 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 로비에 내려왔다가 지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배인으로부터 신혼여행은 부부 중에서 상당수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따로 따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 첫날밤에 상대방의 과거가 문제가 되어 그런 것 같다는 것이었다. 주례를 많이 서는 편인 필자로서는 신랑 신부가 첫날밤만 지내고 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례할 때 무어라고 해야하나 참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람의 시간에 대한 집착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면 과거 집착형, 현재 집착형, 미래 집착형의 세 가지 관념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미래 집착형은 어느 정도의 미래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근접 미래, 세대형 미래, 세기형 미래, 내세 또는 무한대형 미래로 세분할 수 있

다.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나, 좋은 상황으로 환생한다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내세형/무한대형 미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사회가 실현되면 모든 노동자들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하는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나, 김일성이 한반도에 사회주의 사회가 실현되면 국민 모두가 이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옷 입으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독재자들의 경우 세기형 미래를 강조하며, 독일 국민들에게 아리안족의 영광과 빵, 집 및 자동차를 약속한 히틀러, 재임시 연두 교서에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거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일하고 또 일했다고 대답합시다」라고 주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개발 독재를 주장하는 지도자들의 미래는 대체적으로 세대형 미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미래 집착형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미래 집착

형이던지 간에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자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의 미래 집착형이던간에 미래 집착형은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알게 뭐냐 오늘이 중요하지」하는 현재 집착형보다는 좀 더 건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와 베짚이」 우화에서 개미를 더 현명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집착형도 과거 집착형보다는 더 건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집착할 경우 더 낡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부의 쓰라린 과거, 잘못된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데 첫날밤을 다 보낸다면 신혼여행은 허니문(Honey moon)이 아니라 포이즌문(Poison moon)일 수밖에 없다. 신랑 신부들이여, 과거를 묻지 말고 더 낡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잘 먹고 잘 삽시다. 李俊一(65년 文理大卒) 중앙대 정경대학장



「MIT」는 왜 세계 최고?

국내 많은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며, 부심하고 있다. 신임 李基俊 총장도 같은 내용의 개혁목표를 제시하고 구조조정 및 변혁을 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 재료학회 연례 학술대회 참석차 보스턴에 머무르는 틈을 이용해서 MIT공대 학장으로 있는 Dr. Vander Sande와 재료공학과 주임교수로서 POSCO 석좌교수인 Dr. Eager를 잠시 방문하여 MIT공대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과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비결, 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들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면서 명쾌하였다. 「교수의 제반활동, 즉 교육, 연구, 봉사의 실적에 대한 공정하면서도 세심한 평가와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수체계의 확립」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 행정책임자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Global Impact, 즉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했느냐는 것이다. 하기야 듣고 보니 그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싶어 이를 질

문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머리를 들 수가 없었다.

한가지 그들이 우리에게 매우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에서 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국인 교수만으로 한국인 대학원생을 지도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얼떨결에 아마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대답은 했으나 귀국길 비행기 속에서 이 공리 저 공리하느라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白聖基(71년 工大卒)포항공대 부총장



산자를 위한 광시곡

『임가공학을 전공하고 왜 방송 프로덕션 PD, 케이블TV 홍보일을 하게 되었죠?』

얼마전 싱가포르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기자가 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접한 질문이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임산가공=제지회사나 산림청이란 단순한 도식에 맞지 않는 내가 무척 이상한가 보다. 다

양한 업무, 직종, 갖가지 경험. 어찌보면 일관성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토가 있다.

『재즈하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몫』 꿈많은 신입생 시절, 합창단에서 영가와 블루스 연습을 하고 나설 때, 불현듯 하늘에서 붉은 빛이 비쳤

다. 동료의 분신, 그리고 혼돈. 영가와 블루스, 그리고 죽음.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 속에서 存在로서의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吳賢丞(91년 農大卒)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홍보팀

본회는 98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nua.or.kr>)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자유게시판

망의 평화—하늘의 영광

최봉중(70년 師大卒)
psalm7@chollian.net

읽고 싶은 많은 분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제가 63년에 사범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었는데...

이제는 57살이 되었습니다. 아름답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너무나 빨리 역사속에서 사라집니다. 초로와 같고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 해아래서 주신 축복을 경건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가 되기까지

윤정화(88년 社會大卒)
veritas@huinfo.com

우선 동창회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드리며, 동창회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간에서 동문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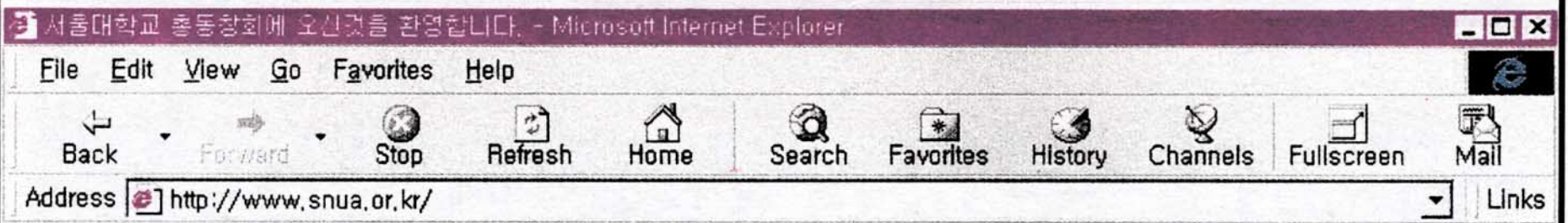
니다.

올해로 제가 베리타스라는 ID를 갖게된 지 만10년이 되는 해입니다.

Veritas는 라틴어로 진리와 진실을 뜻한다는 사실을 동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잘 아시죠? 사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라는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을 때 Naming 때문에 고민을 하다 꿈속에서 "Veritas ~"하는 마치 산신령 같은 목소리를 듣고 「베리타스 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통신 ID를 베리타스로 통일을 해서 때로는 저의 이름보다 베리타스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베리타스라고 자꾸만 저를 부르게 되면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항상 진리와 진실에 가까워질 것 같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만들어주는 베리타스라는 이름을 저는 무척 사랑합니다.



서울대총동창회와 의미있는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2002-111 Vision Plan」으로 동창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 동창회 활동목표 : 2002-111 VISION PLAN

	2002년말 목표	'98년말 실적	비고
기금	100억원	58.4억원 (동창회 25.7억원, 관악회 32.7억원)	재정안정
회보	10만부	8만3천부 (미주판 7천부 포함)	조직강화 및 활성화
장학금	재학생 1%	재학생 0.7%	모교지원 증대

2. 총동창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 : 참여·협력·영광 3부문.
- △음악이 있는 미술전 개최.(미대·음대동창회와 협력)
- △Internet site의 지방·해외지부 Network化.
- △모교 재학생 체육Team 재정지원. (미식축구부·야구부)

3. 동창회 사무처의 SERVICE 기능 강화

- △동문 SERVICE CENTER化 : 관악HALL 운영, 회원 확인, Internet게시판 운용 등

동문여러분의 이름으로 영구히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지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내

- 목 적**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산하에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기부와 출연(현금 및 현물)에 의한 특지장학회를 설립, 운영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모교 재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방법** : 기부금 전액을 안정적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 운영, 예금이자 70~80%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에 사용하며, 20~30%는 물가상승률,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여 원금에 산입함으로써 출연기금의 원금을 영구히 보전합니다. 또한 출연자에게 매기 보고를 통하여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지급대상자는 출연자가 추천·선정하며, 직접 대상자에게 장학금수여식에서 전달합니다.
- 특지장학회 설립시 장점** : 장학재단 설립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별도 비용없이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연한 기금전액이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지장학회 설립현황** : 아남(김주진)특지장학회, 홍성대특지장학회, 이길여특지장학회, 김찬숙특지장학회, 장세일특지장학회, 박주탁특지장학회, 전용성특지장학회



동창회 국민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는 본인의 별도 부담없이
이용금액 일부가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발급대상**
 - 동창 및 가족, 교직원 기타 동창회에서 인정하는 분으로서 국민카드 회원자격이 있는 분
- 카드발급 종류**
 - 총동창회 국민 비자·마스타 카드(개인)
 - 총동창회 국민 비자·마스타 기업카드
- 카드발급 문의 전화**
 - 총동창회 사무실 : 702-2233
 - 국민카드 관측부 : (02)3700-3521~9
 - 국민카드 및 국민은행 전 영업점

4. 카드 이용에 따른 기부금 현황

연도	실 적
95	1,162,165원
96	68,826,274원
97	88,404,998원
98	80,272,178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02)702-2233 / 팩스 (02)703-0755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98년 11월 24일~12월 4일·一般: 98년 11월 24일~11월 30일〉

회 장 단

- ▲부회장 卞圭七= 1백만원
- ▲부회장 李廷武= 50만원
- ▲부회장 崔秉烈= 50만원

관 약 회

- ▲이 사 李乃均= 30만원

상 임 이 사

- ▲崔丁云 사회대동창회장= 20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 ▲이영두⑦동아석재 부사장

◇家政大學

- ▲육선화②서울대 교수
- ▲이인자⑨건국대 학장

◇看護大學

- ▲박정희⑧마산간호專 교수

◇經營大學

- ▲정찬우⑥청운회계법인

◇工科大學

- ▲강진구⑦삼성전기 회장
- ▲고원호④대한양행 회장
- ▲구광서③대광광업 대표
- ▲구윤희②연금사 대표
- ▲김노수②서울대 명예교수
- ▲김동철⑨한성금속 고문
- ▲김병린⑤미라보건설 대표
- ▲김석현⑨前우진산전 부사장
- ▲김선홍⑤印尼 티모르그룹
- ▲김영희③
- ▲김유도②前천일하이텍 대표
- ▲김유채⑦산업기술대 총장
- ▲김천욱⑨연세대 교수
- ▲김태준⑥히림종합건축 대표
- ▲김필한③대마광업 전무
- ▲남정현⑥대우ENG 사장
- ▲박덕상⑥선진ENG 부회장
- ▲박승엽⑤한영전자 회장
- ▲박원준⑦테크&ENG 대표
- ▲박찬규⑤前현대건설 부사장
- ▲박찬모⑤포항공대 교수
- ▲박창선⑥디자인 신세계 사장
- ▲박평주④서울대 명예교수
- ▲서석천⑦한국전력기술
- ▲송명호⑥수도상사 대표
- ▲안동원⑥현상사 대표
- ▲안수길⑦서울대 명예교수
- ▲오원탁⑦가스안전공사
- ▲오창석⑥TPM컨설팅 위원
- ▲유시룡⑦대우전자 상무

- ▲윤병화②우방무역 대표
- ▲이길범③유일건축사무소
- ▲이병희④KAIST 명예교수
- ▲이승우④종합건축설계 대표
- ▲이정률⑥한올방직 대표
- ▲이종훈⑦前한전 사장
- ▲이중성⑥한국ENG 부사장
- ▲이태형⑦태성실업 사장
- ▲정동진⑦대림산업 여천공장
- ▲조규완⑤삼부산업사 사장
- ▲조장희⑥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조형제⑤한화미상사 회장
- ▲최상오⑦신우INT 사장
- ▲최운재⑤前한양바스프우레탄
- ▲한중서⑨前현대중공업 부사장
- ▲황선근⑦인하대 교무처장
- ▲황인호⑥한기종합건축 대표
- ▲황청정③종합건축 하나그룹

◇農科大學

- ▲김강식⑥육류수출협회 회장
- ▲김광호⑥건국대 농과대학장
- ▲김재정③前한국종묘협회 회장
- ▲문준웅③뉴라이프식품 연구소
- ▲신동완④농업사회발전연구원
- ▲유용률④성보화학 부장
- ▲유태종②건양대 교수
- ▲윤대섭⑤성보실업 부회장
- ▲이득룡⑥경기특수산업 대표
- ▲이은웅④서울대 명예교수
- ▲이재기⑦동암토건 대표
- ▲정윤환②일성화학 대표
- ▲한정남⑥사니 대표

◇文理科大學

- ▲김 건②韓銀 금융통화위원
- ▲김용언⑤동서식품 전무
- ▲김용일④가톨릭대 대학원장
- ▲김주필⑦동국대 교수
- ▲김철용⑨한국관광연구원장
- ▲김화중⑤경기대 교수
- ▲민영기⑥경희대 교수
- ▲박종규⑥한국특수선 회장
- ▲박춘호⑤국제해양법 재판관
- ▲성병욱⑥중앙일보 주필
- ▲소광희⑦서울대 교수
- ▲오희필③중도발전연구협의회회장
- ▲윤병태⑥영남대 교수
- ▲이동화⑦자동차공업協 이사
- ▲이상렬⑦목포KBS 상담위원
- ▲이성덕⑥동아대 교수
- ▲이정수⑤통일연수원 교수
- ▲이종하⑦KBS스포츠초크 부장
- ▲장내식⑥SK의료보험조합
- ▲정소성⑥단국대 교수
- ▲정창기④리빙TV 방송단장
- ▲조순승③국회의원
- ▲한만운④前인하대 교수
- ▲홍영대⑦동우실크 대표

◇美術大學

- ▲강은엽③계원예대 부학장

- ▲민경갑⑦유산화실
- ▲황창배⑦화가

◇法科大學

- ▲강상원⑤前전북도지사
- ▲강영순⑦미려관광 대표
- ▲강진성⑥영보 부사장
- ▲강현중⑥변호사
- ▲고광석⑥前한일은행 차장
- ▲공노명⑥前외교통상부 장관
- ▲권석진⑥영진프라스틱 대표
- ▲권호장⑦안양시 부시장
- ▲김규철⑨산업기술정보원장
- ▲김기돈⑦법한 대표
- ▲김기섭⑥변호사
- ▲김대진③변호사
- ▲김도선⑤前철인노동 사장
- ▲김동규⑤前주택공사 사장
- ▲김상훈⑤은행감독원 부원장보
- ▲김성룡④변호사
- ▲김승호⑥변호사
- ▲김영일⑥국회의원
- ▲김인식⑦변호사
- ▲김재덕⑦유니테크상사 대표
- ▲김재철⑥변호사
- ▲김춘봉④변호사
- ▲김현무③변호사
- ▲김현채⑥변호사
- ▲노순길⑦변호사
- ▲목요상⑥국회의원
- ▲박영호⑥前한진 감사
- ▲박재권⑦변호사
- ▲박태서③제일산업개발 상무
- ▲박태영④前한전 중부산지점
- ▲박효성⑥대한항공 전무
- ▲방명희⑥대우모터공업 대표
- ▲백남치⑥국회의원
- ▲백영엽⑦변호사
- ▲손지열⑥서울지법 부장판사
- ▲송상현⑥서울대 교수
- ▲신동수③삼환신용금고 대표
- ▲신창호④유일문화사 회장
- ▲안경상⑦변호사
- ▲안명기⑥변호사
- ▲여정구⑦변호사
- ▲오세방⑥세방INT 대표
- ▲우용환⑥기산신용금고 대표
- ▲우정권⑥변호사
- ▲원장환②삼원빌딩 사장
- ▲윤석용④前미원통상 대표
- ▲윤용호⑦변호사
- ▲이계천⑥야마기시증생활
- ▲이동성⑥주택산업연구원장
- ▲이문재⑥변호사
- ▲이순종⑥한화 대표
- ▲이영범③변호사
- ▲이용우⑥수원지법 원장
- ▲이인제⑦국민신당 고문
- ▲이종선⑥대구고검 검찰이사관
- ▲이종일⑥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충호⑦한일베일런스 사장
- ▲이헌재⑥금융감독위원장

- ▲임광수⑥문광부 저작권과장
- ▲임규오⑤변호사
- ▲임대규⑦변호사
- ▲임연재⑦세정무역 대표
- ▲전웅진⑦미주상사 대표
- ▲정동욱⑦서울고검 검사
- ▲정명래④변호사
- ▲정운직⑦팜택 대표
- ▲지근수⑤한마산업 사장
- ▲지원훈⑥예술의 전당 감사
- ▲진영일③LG증권 사장
- ▲최광률⑤변호사
- ▲최규영⑥前해운조합 이사장
- ▲최규철⑥동명중공업 대표
- ▲최기선⑦인천광역시장
- ▲최기영⑥정선파킹SYS 대표
- ▲최명선③변호사
- ▲최영광④변호사
- ▲최중현⑥연론중재위 감사
- ▲한봉수⑤前상공부 장관
- ▲호문혁⑦서울대 교수
- ▲홍명선⑤前대법원 총무국장
- ▲홍성계④변호사
- ▲홍정희⑥경찰공제회 공제부장
- ▲황경진⑤선계무역 회장
- ▲황명찬⑥건국대 부총장
- ▲황종태⑤변호사

◇師範大學

- ▲곽철규⑦충북대 교수
- ▲김관영⑤前영동여고 교장
- ▲김삼열⑤신일중학교 교장
- ▲김현곤③현대학원 이사장
- ▲나도승②금강권연구소장
- ▲문병학④보험감독원 부원장
- ▲박상규⑦마산교육청 교육장
- ▲박수용⑤진주교육청 교육장
- ▲신란식⑤순천대 사대학장
- ▲이영덕②前정문연 원장
- ▲이영수⑤교수신문 발행인
- ▲조규삼④前서울사대부고 교장
- ▲주일영④중앙대 명예교수
- ▲허관예⑥前공지중학교 교장
- ▲황철수⑤대한삼락회 회장

◇商科大學

- ▲강신돈③국민대 교수
- ▲고학모⑥대주무역 사장
- ▲김기주⑦공인회계사
- ▲김영석⑥도화정보통신 회장
- ▲김용기②대구창업투자 대표
- ▲김창호⑥백일 건설
- ▲나공목⑥코오롱그룹 부회장
- ▲남정우⑥한솔건설 사장
- ▲노병태⑥前현대종합목재
- ▲민경재⑤前광은리스 회장
- ▲박문달⑥LG유통 부사장
- ▲박상은⑥안동대 교수
- ▲박찬중⑥국민신당 선대위의장
- ▲박종아⑥공인회계사
- ▲변병주⑥前조흥은행 상무
- ▲변창기⑤동방산업 사장

- ▲서 행④가산상사 대표
- ▲서병태⑥동아일렉콤 고문
- ▲손상모⑦한국전략경영컨설팅
- ▲손희균⑤공주사대 교수
- ▲송병락⑥서울대 부총장
- ▲심상국⑥남경개발 회장
- ▲엄재율④前동산식품 회장
- ▲오세영⑥국제통운 전무
- ▲오우현⑥축협중앙회 부회장
- ▲우찬목⑤前조흥은행 행장
- ▲이건재⑤오정약품 대표
- ▲이길우⑤대한화재해상보험
- ▲이상화⑥제일은행 과천지점
- ▲이수인⑥국회의원
- ▲이순학⑥한솔그룹 사장
- ▲이유현⑦영진무역 대표
- ▲이창수⑤관동대 교수
- ▲이희순⑥세무사
- ▲장종록⑥은성사 기술고문
- ▲전창수⑥인하중앙의료원
- ▲전철환⑥한국은행 총재
- ▲정재택②신구專大 교수
- ▲조 순④국회의원
- ▲조문제⑥무림제지 부회장
- ▲조인석⑤인하대 명예교수
- ▲최삼길⑥한국외환은행 이사
- ▲추한식⑤시민버스 대표
- ▲한상현⑤세방여행사 고문
- ▲한수길⑥롯데제과 부사장
- ▲한재봉④파월 회장
- ▲홍영극④중산무역 사장

◇獸醫科大學

- ▲강운식⑦레미꼬레 사장
- ▲계봉구⑥동원신약 대표
- ▲권순경②서울시보건환경研
- ▲김태현⑦정원종문장 대표
- ▲신현준⑤
- ▲이수걸⑥울산시 축산과
- ▲임영일④합동동물병원장

◇藥學大學

- ▲권경근⑥현암약국
- ▲김규호⑥새서울약국
- ▲김길수⑤이화여대 약대학장
- ▲김명수⑦KIST응용화학부
- ▲김태욱⑦호남약국
- ▲김태현⑦부광약품 상무
- ▲문승만⑥제일약국
- ▲우재성⑦검단약국
- ▲이홍주⑤삼희약품 부사장

◇音樂大學

- ▲김정자④서울대 교수

◇醫科大學

- ▲강세철⑤강세철의원장
- ▲강영민⑥강영민내과원장
- ▲고계환⑦정형외과의원장
- ▲김동순⑦서울중앙병원 과장
- ▲김명호⑦단국대 교수
- ▲김병찬⑥한라병원 이사장

▲김시환⁵⁹서울대 교수
▲김영태⁷¹서울중앙병원 과장
▲김형전⁶⁶대한안과학회장
▲민영옥⁶⁰진주고려병원 과장
▲박기홍⁶⁴박산부인과의원장
▲박명옥⁷⁷성형외과의원장
▲박인호⁶²중앙병원 정신과
▲박지홍⁷⁵길병원 산부인과
▲박호진⁷⁸서울적십자병원 과장
▲배진선⁶⁴충남의대 교수
▲송영명⁷³소아과의원장
▲신성우⁶³신소아과의원장
▲양재건⁶¹양외과의원장
▲오창학⁷⁴오창학산부인과의원
▲유인협⁷⁴신일병원 과장
▲유형래⁶⁰성야병원 원장
▲윤수중⁷⁹신경정신과의원장
▲윤재일⁷²서울대 교수
▲윤택구⁵⁷원자력병원 병리학
▲이대규⁶³민경산업 대표
▲이명우⁶⁷산부인과의원장
▲이순탁⁶⁸평화내과의원장
▲이원기⁶²단국대 의대학장
▲장익열⁴⁹신신평제지 대표
▲장환식⁷⁹서울병원 일반의과
▲정문상⁷¹서울대 교수
▲정창생⁶⁶정창생의원장
▲조두영⁶¹서울대 교수
▲지영일⁶⁶신일병원장
▲최병인⁷⁴서울대병원 부장
▲최익순⁶⁷최소아과의원장
▲한홍무⁶²동아의대 정신과
▲홍영수⁷³신경정신과의원장
▲황성남⁷⁵중앙대 교수

◇ 齒科大學

▲구창수⁶⁶구치과의원장
▲김경애⁶¹김경애치과의원장
▲김규진⁷⁰김규진치과의원장
▲김기현⁶⁰마산치과의원장
▲김문형⁶⁶김문형치과의원장
▲김성룡⁶⁴김성룡치과의원장
▲김여미⁸⁰성북치과의원장
▲김평일⁷²강남치과의원장
▲김한경⁶⁹김한경치과의원장
▲박용호⁸⁰박용호치과의원장
▲박재중⁶⁵상아치과의원장
▲손광웅⁶⁶손치과의원장
▲송우화⁵⁷송우화치과의원장
▲송춘근⁷⁰남경치과의원장
▲엄필성⁶⁰남북치과의원장
▲이건섭⁵³이치과의원장
▲이준기⁵⁹이치과의원장
▲이춘근⁴¹이춘근치과의원장
▲임윤식⁸⁰임윤식치과의원장
▲임채균⁵⁷임채균치과의원장
▲장철성⁶⁶장철성치과의원장
▲장치영⁸¹장치영치과의원장
▲정관희⁶⁷정관희치과의원장
▲정종평⁶⁹서울대병원 치주과
▲한형진⁵⁸한형진치과의원장
▲황영환⁷⁴황영환치과의원장
▲황오현⁶⁶황오현치과의원장

◇ 大學院

▲구창휘⁸⁷부광약품 상무
▲김웅진⁴⁹을지병원 의무원장

◇ 經營大學院

▲김정태⁶⁸신사주유소 회장
▲한기룡⁷⁴더존소프트 사장
▲허형무⁷²동선합섬 상무

◇ 保健大學院

▲강신효⁷⁰동홍한의원장

▲김송전⁷²명지대 교수
▲이시영⁷⁰한국마사회
◇ 司法大學院
▲김영준⁷⁰국회의원
▲신웅식⁶⁶변호사
▲조가운⁶⁸대한법률구조공단

◇ 新聞大學院

▲이준우⁷⁵한국DB진흥센터
▲임채욱⁷⁰한국문화정책개발원

◇ 行政大學院

▲김세욱⁶³전경찰청장
▲김영화⁷⁰특허법률사무소장
▲정국현⁷⁴한국자원재생공사
▲조남호⁷³서울 서초구청장
▲한호선⁷⁴前국회의원

일 반

◇ 人文大學

▲강병국⁸²▲강인식⁸⁴▲공종민⁸⁵
▲구선경⁹¹▲김 영⁹²▲김국현⁷⁶
▲김법준⁹⁰▲김영성⁹⁰▲김영태⁸⁷
▲김익진⁸⁸▲김종원⁸³▲김진란⁸⁷
▲김진영⁷⁹▲박동춘⁷⁷▲박치문⁷⁹
▲박희병⁷⁹▲배기호⁸¹▲소효영⁸³
▲손예철⁷⁶▲안병용⁸⁹▲오보영⁷⁸
▲유경미⁸⁶▲유승우⁸⁹▲윤상익⁸⁵
▲윤종범⁸¹▲이개석⁷⁶▲이유선⁷⁶
▲이주영⁸⁶▲정상봉⁸⁶▲정혜경⁸⁷
▲조태환⁷⁷▲진경년⁸⁰▲최남재⁸⁹
▲최정선⁸⁸▲최종성⁹⁰▲최홍렬⁹¹
▲홍광숙⁹⁵

◇ 社會科學大學

▲강덕운⁹⁰▲강상주⁷⁸▲강승모⁸⁵
▲고승호⁹⁰▲곽정환⁹⁴▲권용발⁸¹
▲김갑철⁸⁸▲김계수⁸⁵▲김규섭⁷⁶
▲김병순⁸⁶▲김선창⁹³▲김선태⁸⁹
▲김연진⁸⁹▲김영남⁹⁰▲김정희⁹⁴
▲김종일⁸⁴▲남승우⁹⁰▲박순진⁹⁰
▲박윤희⁸⁸▲박재하⁸¹▲박해선⁸⁷
▲서수균⁹²▲손광락⁷⁸▲신상명⁹⁰
▲신용호⁷⁹▲안재완⁹⁰▲유근철⁸¹
▲유상하⁹¹▲은기수⁸⁵▲이남운⁸³
▲이문재⁹¹▲이문태⁷⁶▲이상권⁷⁹
▲이정만⁸⁰▲임성만⁸⁵▲장규홍⁸⁸
▲장운중⁸²▲장홍석⁸⁹▲정상호⁹³
▲정성인⁸²▲정성효⁸⁵▲정영걸⁸⁶
▲정운용⁸⁷▲조병철⁷⁷▲조현진⁸⁹
▲조효승⁸⁸▲주순식⁷⁷▲채병건⁹¹
▲최기철⁹⁶▲최남호⁸¹▲홍경준⁸⁹
▲홍단식⁹⁰▲황규호⁷⁸

◇ 自然科學大學

▲김승우⁸⁹▲김승주⁸⁹▲김종우⁸⁹
▲박종욱⁷⁶▲석원경⁷⁹▲송 운⁹²
▲안계수⁷⁸▲이기섭⁹⁵▲이순열⁸³
▲정인범⁸⁹▲주창경⁸³▲허진호⁸³

◇ 家政大學

▲강은영⁸⁸▲권훈정⁸²▲김화자⁶³
▲남지영⁹²▲류지수⁸⁷▲서복선⁷⁴
▲성화경⁶³▲육완진⁶¹▲이명숙⁷⁹
▲이소영⁸²▲이영주⁶⁰▲이정화⁸⁰
▲이현우⁹²▲장은영⁵⁹▲정경숙⁶²
▲정양호⁶³▲정은희⁷⁶▲조현순⁸⁶
▲지금수⁶⁰▲최근영⁹⁵▲최영희⁷⁶
▲한순옥⁶¹▲한은숙⁸⁵▲한호경⁷⁴

◇ 看護大學

▲복안균⁵⁹▲오향순⁸²▲유문자⁶⁸

▲전경숙⁸⁷▲최병남⁷¹

◇ 經營大學

▲강의석⁹⁴▲곽기영⁸⁸▲김대진⁷⁸
▲김병진⁹⁴▲김상범⁸⁹▲김순영⁸³
▲김영백⁸⁶▲김왕용⁸²▲김유근⁷⁹
▲김점근⁸⁴▲김진택⁸³▲김택중⁹³
▲김형희⁸³▲김홍식⁹⁴▲민상기⁹³
▲박정석⁸¹▲박충선⁸⁵▲배재학⁷⁶
▲서석형⁸⁹▲심기필⁹¹▲안상순⁹⁰
▲오승훈⁹⁰▲오태동⁸⁰▲유승권⁹¹
▲유인식⁹⁶▲윤종수⁸⁹▲이경하⁸⁸
▲이동훈⁹²▲이선규⁸⁸▲이성우⁷⁸
▲이성호⁹²▲이승호⁹⁴▲이영준⁸⁶
▲이재희⁸⁷▲이정원⁹¹▲이창원⁸⁹
▲장창호⁸⁹▲전대현⁹⁰▲정용재⁸⁷
▲정진흙⁷⁸▲정혁진⁹³▲조승현⁸⁶
▲조재근⁸⁰▲조필호⁸⁶▲조화훈⁸⁰
▲조훈제⁸⁵▲최원석⁹²▲최현지⁹⁰
▲한명진⁸⁷▲한상민⁹⁴

◇ 工科大學

▲강경달⁹¹▲강상균⁹⁶▲강상돈⁹⁶
▲강석태⁷⁸▲강수준⁷⁸▲강준우⁸⁰
▲강지행⁷⁸▲고시현⁷⁵▲고영범⁸⁰
▲구장희⁶⁵▲구재광⁵⁷▲권세혁⁷⁴
▲권영택⁶⁹▲권일건⁸²▲권창현⁷⁷
▲권혁선⁷⁶▲권혁주⁷⁸▲김균섭⁷⁴
▲김도완⁹⁵▲김동규⁶⁴▲김동성⁷⁷
▲김동원⁸²▲김동진⁷³▲김명린⁶⁵
▲김명섭⁸⁸▲김무언⁶⁸▲김상규⁷²
▲김선국⁸⁹▲김선복⁶⁶▲김성수⁷⁹
▲김성우⁶³▲김성진⁷⁷▲김수철⁷³
▲김순일⁶¹▲김영규⁸⁰▲김영철⁵⁷
▲김영철⁶³▲김영호⁷⁵▲김용구⁸²
▲김용덕⁵²▲김용수⁷⁷▲김용원⁷⁸
▲김윤식⁹⁵▲김윤환⁶⁶▲김익수⁵⁶
▲김익훈⁵³▲김인영⁶²▲김재복⁷⁴
▲김재환⁵⁸▲김정선⁷⁴▲김정호⁸⁸
▲김종래⁹⁵▲김종민⁶⁴▲김종욱⁷⁰
▲김종원⁷⁸▲김종인⁷⁰▲김종준⁷⁵
▲김지원⁷⁹▲김지호⁵⁹▲김진일⁷⁵
▲김진희⁹⁰▲김창덕⁷⁹▲김천주⁶⁴
▲김철수⁸⁴▲김철화⁷³▲김충섭⁶⁵
▲김태한⁹⁵▲김택환⁵¹▲김한길⁸⁵
▲김현진⁷⁷▲김현철⁶²▲김형만⁶⁰
▲김홍곤⁸⁰▲김홍구⁸⁴▲김희창⁶²
▲나성웅⁷⁶▲나정서⁷⁵▲남 일⁶⁶
▲남기태⁹⁵▲남기형⁹⁰▲남동익⁷⁰
▲남민우⁸⁴▲남승운⁸⁸▲노무수⁶⁷
▲노철웅⁷⁰▲노형민⁷⁷▲노재호⁷²
▲맹두진⁹²▲문규철⁷³▲문동민⁶¹
▲문명남⁶⁷▲민병구⁶⁵▲민승기⁹³
▲박건우⁶⁴▲박국배⁸⁵▲박근룡⁶⁸
▲박기도⁶⁷▲박노선⁷⁹▲박문화⁷⁶
▲박민규⁹¹▲박민용⁸⁵▲박병완⁸²
▲박병준⁸²▲박상호⁸⁰▲박상훈⁷⁷
▲박영문⁶⁶▲박영택⁷⁵▲박원구⁷⁷
▲박원훈⁶⁴▲박재우⁷⁸▲박재현⁸⁶
▲박정훈⁹⁵▲백세흙⁷⁰▲백수철⁸¹
▲백영한⁶²▲백인섭⁶⁹▲변경석⁹⁷
▲변영삼⁸¹▲변희협⁶⁶▲서명환⁸³
▲서선덕⁷⁹▲서의석⁵⁷▲석영수⁷⁵
▲설순지⁹³▲손 식⁸²▲송병복⁸³
▲송상현⁷⁴▲송완근⁶⁸▲송인규⁸⁷
▲송재경⁹⁰▲송재준⁹³▲신경호⁶⁵
▲신동엽⁷⁴▲신원기⁷⁰▲신윤승⁷⁸
▲신현복⁸¹▲신현식⁵⁴▲신희승⁷⁵
▲심응섭⁷⁵▲안강환⁹⁷▲안병의⁸⁶
▲안재우⁹⁵▲안창범⁷⁹▲엄태준⁷⁷
▲여운관⁵⁷▲여종기⁷⁰▲오경수⁶⁶
▲오세환⁶⁵▲오장수⁷⁸▲오창석⁷³
▲오형식⁸⁴▲목영석⁸²▲우상렬⁵⁶
▲우상룡⁷⁶▲우태우⁸²▲유무영⁶⁴
▲유박행⁶⁷▲유지용⁹²▲유진형⁸⁷

◇ 農科大學

▲강희신⁵⁷▲고성호⁸⁹▲권성기⁸⁹
▲권오상⁸⁸▲김경준⁹⁰▲김구용⁷⁶
▲김득래⁵⁵▲김복진⁶⁴▲김연실⁸⁹
▲김영기⁵⁸▲김인상⁶⁹▲김일중⁷³
▲김준환⁵⁵▲김창혁⁷⁴▲남구한⁶⁴
▲노의래⁶⁸▲맹덕수⁷⁸▲문태화⁷⁵
▲박광훈⁵⁷▲박남주⁶⁵▲박상진⁶³
▲박성석⁵⁷▲박치석⁷¹▲박혜자⁶⁴
▲박흥준⁸⁹▲백유현⁶⁰▲송지은⁹²
▲안용태⁶⁶▲안형진⁷⁸▲우호길⁷⁸
▲원용택⁵⁷▲유명재⁷⁹▲유충렬⁷⁸
▲유형우⁷⁴▲윤재섭⁹⁰▲윤희석⁷⁰
▲이광웅⁶⁸▲이근희⁶⁹▲이명영⁵⁶
▲이수성⁶³▲이영문⁶⁶▲이정양⁹³
▲이준원⁸⁵▲이창근⁶⁴▲이창우⁴⁹
▲임계숙⁶⁴▲전영수⁸⁸▲정기훈⁸¹
▲정문섭⁹⁵▲정택태⁷⁸▲정진국⁷⁵
▲정희석⁶⁴▲조병주⁸⁵▲조병찬⁷³
▲조용섭⁶⁸▲조항태⁷²▲최명욱⁶⁷
▲한중석⁶⁵▲한해룡⁶⁰▲홍재희⁶²

◇ 文理科大學

▲강주국⁵²▲고문환⁶⁶▲고병관⁶⁰
▲고상빈⁵⁷▲권영조⁶⁵▲권영조⁶⁵
▲권오규⁵⁷▲권태환⁶⁵▲김 구⁶⁸
▲김경화⁷³▲김기영⁵⁹▲김문성⁶⁰
▲김병호⁷⁰▲김상태⁶⁰▲김선영⁵⁸
▲김성희⁶⁷▲김영구⁶⁶▲김용성⁶⁸
▲김재환⁷³▲김중술⁵⁹▲김형기⁷⁴
▲김형렬⁶¹▲김형일⁵⁸▲김홍운⁶⁸
▲김흥기⁵⁷▲남동우⁷²▲문광웅⁶⁵
▲문동성⁷³▲민병출⁷³▲박명근⁵⁵
▲박우석⁷⁰▲박은수⁵⁰▲박종민⁵⁸

▲유환규⁵⁶▲윤대식⁸⁸▲윤덕호⁷⁷
▲윤여경⁶²▲윤재홍⁶⁵▲윤현철⁶⁹
▲윤호진⁶⁵▲이강구⁶⁹▲이건영⁵¹
▲이건형⁶⁴▲이건형⁸⁰▲이경돈⁸⁰
▲이경서⁵⁷▲이경원⁶⁶▲이교상⁷⁰
▲이규봉⁷⁸▲이근모⁷⁹▲이길형⁷⁶
▲이길형⁸⁵▲이동준⁸³▲이명규⁹⁷
▲이명일⁶⁷▲이민철⁶⁴▲이병길⁶⁵
▲이병일⁸⁸▲이상근⁷⁵▲이상만⁷⁴
▲이상영⁹⁶▲이석준⁹⁶▲이선환⁵⁶
▲이수근⁸⁸▲이승우⁶³▲이완상⁵⁸
▲이용호⁷⁶▲이육현⁸⁹▲이원종⁹⁷
▲이원호⁸⁵▲이윤용⁶¹▲이윤제⁵⁷
▲이은성⁶⁸▲이일환⁶⁰▲이재건⁶⁶
▲이재락⁷⁶▲이재성⁸³▲이재완⁷⁵
▲이재창⁵⁷▲이재형⁶⁹▲이종우⁹⁴
▲이종화⁵⁵▲이진희⁸²▲이철호⁸⁷
▲이필한⁷³▲임경호⁸⁶▲임일웅⁶³
▲임준서⁹¹▲임한묵⁶⁶▲장명섭⁸⁹
▲장민석⁹⁶▲장영배⁷⁶▲장영중⁹⁷
▲장진호⁷⁶▲장충균⁷³▲전도영⁸⁴
▲전종균⁸⁰▲정광석⁷⁵▲정문구⁹⁴
▲정수현⁷³▲정승화⁷⁴▲정유나⁸²
▲정윤재⁹³▲정익진⁷⁶▲정종대⁶³
▲정중현⁸⁴▲정학영⁸³▲정해길⁶⁹
▲조병덕⁵⁷▲조상현⁸⁷▲조순교⁷⁸
▲조영길⁹²▲조유근⁷¹▲조한상⁹⁰
▲조항균⁶⁰▲조현준⁷⁵▲조혜경⁸⁷
▲주광윤⁶⁹▲주명로⁶⁷▲주수일⁶⁵
▲지찬호⁹³▲진은석⁹⁶▲진행섭⁷⁰
▲차석배⁶³▲채규일⁹⁶▲최두환⁷⁹
▲최병길⁷⁵▲최상기⁷⁸▲최상민⁶⁸
▲최원준⁹³▲최재원⁸⁷▲최정해⁹⁰
▲편종근⁷⁰▲하재명⁷⁸▲하태권⁹¹
▲함태근⁸⁰▲허 윤⁹⁷▲홍 섭⁸³
▲홍길희⁷⁵▲홍국남⁶⁵▲홍규식⁸⁶
▲홍영환⁷⁹▲홍원표⁸³▲홍철진⁹⁴
▲홍희선⁵⁸▲황 탁⁵⁸▲황덕규⁷⁰
▲황선영⁷⁶▲황성수⁹⁶▲황우형⁶⁷
▲황정환⁶⁹▲황진석⁸³▲황철성⁸⁷

◇ 農科大學

▲강희신⁵⁷▲고성호⁸⁹▲권성기⁸⁹
▲권오상⁸⁸▲김경준⁹⁰▲김구용⁷⁶
▲김득래⁵⁵▲김복진⁶⁴▲김연실⁸⁹
▲김영기⁵⁸▲김인상⁶⁹▲김일중⁷³
▲김준환⁵⁵▲김창혁⁷⁴▲남구한⁶⁴
▲노의래⁶⁸▲맹덕수⁷⁸▲문태화⁷⁵
▲박광훈⁵⁷▲박남주⁶⁵▲박상진⁶³
▲박성석⁵⁷▲박치석⁷¹▲박혜자⁶⁴
▲박흥준⁸⁹▲백유현⁶⁰▲송지은⁹²
▲안용태⁶⁶▲안형진⁷⁸▲우호길⁷⁸
▲원용택⁵⁷▲유명재⁷⁹▲유충렬⁷⁸
▲유형우⁷⁴▲윤재섭⁹⁰▲윤희석⁷⁰
▲이광웅⁶⁸▲이근희⁶⁹▲이명영⁵⁶
▲이수성⁶³▲이영문⁶⁶▲이정양⁹³
▲이준원⁸⁵▲이창근⁶⁴▲이창우⁴⁹
▲임계숙⁶⁴▲전영수⁸⁸▲정기훈⁸¹
▲정문섭⁹⁵▲정택태⁷⁸▲정진국⁷⁵
▲정희석⁶⁴▲조병주⁸⁵▲조병찬⁷³
▲조용섭⁶⁸▲조항태⁷²▲최명욱⁶⁷
▲한중석⁶⁵▲한해룡⁶⁰▲홍재희⁶²

◇ 文理科大學

▲강주국⁵²▲고문환⁶⁶▲고병관⁶⁰
▲고상빈⁵⁷▲권영조⁶⁵▲권영조⁶⁵
▲권오규⁵⁷▲권태환⁶⁵▲김 구⁶⁸
▲김경화⁷³▲김기영⁵⁹▲김문성⁶⁰
▲김병호⁷⁰▲김상태⁶⁰▲김선영⁵⁸
▲김성희⁶⁷▲김영구⁶⁶▲김용성⁶⁸
▲김재환⁷³▲김중술⁵⁹▲김형기⁷⁴
▲김형렬⁶¹▲김형일⁵⁸▲김홍운⁶⁸
▲김흥기⁵⁷▲남동우⁷²▲문광웅⁶⁵
▲문동성⁷³▲민병출⁷³▲박명근⁵⁵
▲박우석⁷⁰▲박은수⁵⁰▲박종민⁵⁸

▲방병채⁶⁴▲성화용⁶⁸▲손학규⁷³
▲송덕진⁷¹▲신동균⁶³▲신동철⁶⁵
▲신재하⁶⁰▲신중성⁷⁴▲신진순⁷⁴
▲신현영⁷⁰▲심양홍⁷¹▲안호선⁷⁴
▲양정섭⁵¹▲유광식⁸²▲유기수⁵⁷
▲유수현⁵³▲유제식⁵⁶▲윤재근⁶⁸
▲윤정옥⁵⁶▲이 용⁷⁴▲이경숙⁷³
▲이근호⁶¹▲이방환⁶⁹▲이병혁⁷¹
▲이성록⁷⁵▲이성민⁷⁴▲이세윤⁷³
▲이수호⁵⁷▲이순길⁶⁵▲이순자⁶¹
▲이순자⁷¹▲이일해⁵¹▲이정배⁶²
▲이정훈⁵⁷▲이종건⁷⁰▲이종덕⁶⁶
▲이진환⁷⁴▲이해영⁵⁷▲임정섭⁵⁴
▲임창근⁶³▲장기홍⁵⁷▲장세현⁴⁵
▲장영섭⁷⁵▲전혜자⁶⁵▲정무진⁵⁶
▲정연채⁷³▲정윤용⁷¹▲정익성⁶¹
▲정재봉⁶⁴▲정주환⁷¹▲정혜영⁶⁴
▲조모형⁶¹▲조무현⁷²▲조장호⁶⁵
▲진홍일⁶⁶▲채찬희⁶⁷▲천윤길⁷¹
▲최덕린⁵⁹▲최문언⁶⁶▲최석진⁵⁹
▲최시중⁶³▲한운사⁴⁷▲한정인⁵⁵
▲황인광⁶⁷

◇ 美術大學

▲김동선⁵⁷▲김성천⁸⁶▲김정혜⁶⁵
▲박남희⁷⁴▲박성완⁸²▲배형경⁷⁸
▲백명진⁷⁹▲송명은⁸⁶▲심현삼⁶³
▲우계숙⁷⁶▲윤소연⁸⁹▲이민주⁸⁰
▲이상갑⁷⁰▲이철자⁶⁵▲이인옥⁷⁴
▲이주숙⁷⁴▲장인자⁶⁹▲전민숙⁷⁸
▲주해준⁶¹▲최애경⁶⁰

◇ 法科大學

▲강신영⁵⁶▲강일원⁸²

◇師範大學

▲강선기⁷⁹ ▲강신호⁶⁰ ▲강영구⁷⁴
▲고승해⁹⁰ ▲국해웅⁶⁷ ▲권성진⁸¹
▲권오철⁶⁴ ▲권혁봉⁶⁰ ▲김길중⁵²
▲김남형⁸⁴ ▲김만기⁶³ ▲김미숙⁷⁵
▲김병연⁷⁵ ▲김보현⁹⁴ ▲김상배⁵⁹
▲김상운⁸³ ▲김상훈⁵⁴ ▲김선웅⁸²
▲김성문⁸⁶ ▲김성태⁵⁹ ▲김소순³⁹
▲김익관⁷¹ ▲김영수⁹¹ ▲김용성⁷⁸
▲김은숙⁵⁵ ▲김인옥⁷⁶ ▲김종경⁵⁸
▲김준영⁸¹ ▲김지선⁷² ▲김진완⁸⁰
▲김진홍⁶⁴ ▲김태화⁴⁰ ▲김현식⁸³
▲김현주⁹¹ ▲노영희⁷⁵ ▲류재택⁷³
▲류재택⁷³ ▲민무일⁶⁹ ▲민흥기⁶³
▲박근화⁶⁰ ▲박명하⁸⁵ ▲박미우⁸⁹
▲박상래⁵⁶ ▲박상훈⁸⁰ ▲박승준⁶⁷
▲박양수⁵⁹ ▲박영배⁷² ▲박용설⁷⁶
▲박인호⁷⁵ ▲박종선⁸¹ ▲박종현⁶²
▲박종호⁸⁷ ▲박진영⁵⁹ ▲박효석⁷⁴
▲백길웅⁶⁸ ▲변희준⁶² ▲서부원⁵⁷
▲서형희⁶⁹ ▲성백엽⁷³ ▲성승길⁶⁷
▲손윤성⁷⁵ ▲신 훈⁷¹ ▲신각범⁵⁸
▲신동욱⁷⁵ ▲신중성⁶⁵ ▲신철중⁵⁴

▲안성도⁶⁵ ▲안세열⁶⁰ ▲안종혁⁸¹
▲안준천⁶² ▲안하은⁵² ▲양태일⁶³
▲엄기택⁶⁵ ▲연대성⁶⁴ ▲오홍석⁵⁸
▲우명길⁷² ▲유명수⁶⁵ ▲유상주⁶²
▲유영채⁷⁴ ▲유재완⁸⁶ ▲윤기중⁶¹
▲윤성대⁷¹ ▲윤영준⁹¹ ▲윤정광⁶⁰
▲윤종박⁹⁴ ▲이강석⁵⁷ ▲이경은⁹¹
▲이규성⁹⁵ ▲이대욱⁷⁷ ▲이두현⁵⁰
▲이명균⁸⁷ ▲이문규⁷³ ▲이산석⁵²
▲이상권⁸⁰ ▲이상용⁸⁴ ▲이순녀⁴⁰
▲이순성⁴⁵ ▲이승훈⁷⁸ ▲이시혁⁶⁰
▲이영란⁷⁴ ▲이영운⁶² ▲이영자⁶⁰
▲이용덕⁷¹ ▲이재균⁹³ ▲이재철⁸¹
▲이정태⁷⁴ ▲이종신⁶⁵ ▲이종필⁹¹
▲이진원⁷² ▲이채규⁷³ ▲이한영⁶⁰
▲이희종⁵⁵ ▲인병식⁶⁵ ▲임규성⁶⁹
▲임영무⁷⁵ ▲장도영⁹⁵ ▲장영호⁸¹
▲장혜자⁷⁸ ▲전태욱⁷⁹ ▲전효준³⁴
▲정덕영⁶⁶ ▲정명수⁷³ ▲정성욱⁸⁴
▲정순영⁶⁰ ▲정철재⁸⁰ ▲조강민⁶⁰
▲조근호⁸¹ ▲조규완⁵⁷ ▲조정휘⁶⁵
▲조형우⁸⁴ ▲진근영⁹³ ▲진영일⁶⁵
▲최광렬⁸⁰ ▲최규남⁶⁹ ▲최남신⁵⁵
▲최명욱⁷¹ ▲최병선⁵⁸ ▲최소영⁹⁷

▲최윤경⁸⁷ ▲최정숙⁵⁷ ▲최충욱⁷⁵
▲한난숙⁴⁵ ▲한미섭⁸⁵ ▲한성동⁵⁹
▲한연수⁶⁴ ▲한인숙⁶⁵ ▲한정교⁶¹
▲홍기삼⁶⁷ ▲홍순자⁴¹ ▲황영란⁸⁴
▲황정욱⁶⁷

◇商科大學

▲강기호⁷² ▲권동수⁵⁸ ▲권성우⁶⁹
▲권영두⁶⁵ ▲김광준⁶⁹ ▲김덕윤⁶⁹
▲김성국⁷⁵ ▲김지환⁶⁵ ▲김재형⁶⁵
▲김정남⁶⁶ ▲김정현⁶³ ▲김종호⁵⁸
▲김진천⁷¹ ▲김진홍³⁶ ▲박용희⁶⁷
▲배진성⁶⁴ ▲서규상⁶⁷ ▲서방세⁷²
▲선종승⁷⁵ ▲송계충⁷³ ▲송병규⁶⁷
▲우순구⁵⁷ ▲유재인⁷¹ ▲이관우⁷⁴
▲이규재⁴⁸ ▲이기철⁶¹ ▲이대우⁷⁷
▲이두승⁵⁹ ▲이두호⁷⁰ ▲이연택⁶⁴
▲이장원⁶⁸ ▲이재국⁶⁵ ▲이종렬⁴⁹
▲이충식⁷⁵ ▲이희련⁶⁴ ▲장광명⁶⁴
▲장병완⁷⁵ ▲정익준⁷³ ▲정일호⁵⁶
▲조동성⁷¹ ▲조봉래⁶⁷ ▲조석조⁴⁷
▲진윤구⁷⁵ ▲채서일⁷³ ▲최명해⁷²
▲허중승⁶⁷ ▲현해관⁷¹ ▲홍용찬⁷²
▲황의길⁶¹

◇獸醫科大學

▲강윤경⁸⁷ ▲김원철⁷¹ ▲김덕수⁶³
▲김이섭⁵⁹ ▲문선창⁷⁴ ▲박호인⁷⁵
▲방극승⁶⁸ ▲송도영⁹¹ ▲양재선⁶⁴
▲오연섭⁵⁵ ▲왕태균⁶⁴ ▲이병성⁶⁹
▲이심수⁶⁹ ▲이성모⁸² ▲이양성⁶²
▲이종석⁵⁷ ▲태주호⁸⁵

◇藥學大學

▲강택림⁶⁸ ▲공영운⁶⁴ ▲구창모⁷⁷
▲김기현⁶⁶ ▲김대원⁸³ ▲김민경⁸⁹
▲김재백⁶⁶ ▲김종호⁷⁶ ▲김태근⁷⁵
▲김희진⁹³ ▲맹민영⁶⁰ ▲박노상⁷²
▲박동호⁵⁸ ▲박명환⁷⁷ ▲방근수⁹⁴
▲변운성⁵⁶ ▲서경원⁸⁸ ▲손정식⁷⁸
▲신동훈⁷⁴ ▲신박일⁶⁴ ▲양호길⁸⁴
▲윤승모⁷¹ ▲윤의섭⁶⁸ ▲이숙연⁶²
▲이일영⁶⁰ ▲이정우⁵³ ▲이진수⁶⁶
▲임익근⁷⁶ ▲정종철⁷⁷ ▲조남주⁵⁷
▲조용호⁶⁴ ▲진성근⁷⁴ ▲최영해⁹²
▲최호자⁶⁷ ▲최희선⁷⁰ ▲하성상⁶⁴
▲현영우⁷¹

◇音樂大學

▲강미규⁸² ▲강미애⁶⁶ ▲강수운⁹⁰
▲곽상엽⁹⁵ ▲김 설⁸³ ▲김경혜⁸⁵
▲김동일⁷⁷ ▲김미경⁶⁴ ▲김선미⁸⁶
▲김인숙⁷¹ ▲김인완⁶¹ ▲김일륜⁸³
▲김재원⁸⁷ ▲김혜림⁸² ▲김혜숙⁶⁹
▲노인경⁸⁸ ▲박경서⁷⁷ ▲박근정⁸⁷
▲박영자⁵⁹ ▲박은하⁸⁴ ▲박종원⁶⁷
▲박지선⁸⁸ ▲박희준⁶¹ ▲방미영⁷⁹
▲서정실⁷⁵ ▲손명희⁷⁵ ▲손보영⁸⁶
▲손복희⁷² ▲손순옥⁷³ ▲신현길⁷⁷
▲신혜승⁸¹ ▲안 민⁸¹ ▲안윤주⁸⁶
▲양혜숙⁷² ▲염진섭⁸² ▲오병홍⁷⁹
▲오진욱⁷² ▲유선종⁷⁹ ▲유인경⁶⁹
▲유인숙⁶⁵ ▲윤소영⁷⁸ ▲윤용훈⁷²
▲윤지현⁶⁶ ▲이경희⁸² ▲이명진⁸⁸
▲이영수⁷⁵ ▲이영이⁷⁷ ▲이옥희⁶⁴
▲이요한⁸⁵ ▲이은주⁸⁷ ▲이은호⁷²
▲이자경⁸⁵ ▲이종명⁶⁹ ▲이종숙⁷³
▲이혜은⁶⁷ ▲임명재⁶² ▲임미수⁷⁹
▲임승려⁷⁷ ▲임재원⁶⁰ ▲임종필⁶⁴
▲장계림⁷⁹ ▲정미향⁸⁵ ▲정은희⁹¹
▲정진희⁸¹ ▲최상숙⁷⁵ ▲최용호⁷²
▲최윤규⁷⁰ ▲최은영⁸² ▲최은주⁸⁰
▲한형실⁸¹ ▲한혜자⁶⁵ ▲허은희⁷⁸
▲황광섭⁷¹ ▲황윤영⁸⁹

◇醫科大學

▲강석진⁸¹ ▲구홍희⁸³ ▲김경래⁸⁰
▲김기호⁸³ ▲김병일⁸¹ ▲김상준⁷²
▲김수웅⁸⁸ ▲김영균⁸⁵ ▲김영택⁵²
▲김용태⁶³ ▲김은주⁸⁸ ▲김재면⁸¹
▲김진국⁵⁸ ▲김창진⁸¹ ▲민목기⁸⁰
▲박도준⁸⁵ ▲박상후⁸² ▲박세용⁸²
▲박소배⁷⁸ ▲박영주⁸⁸ ▲박정국⁶⁶
▲박정미⁸⁵ ▲박현엽⁶¹ ▲서석계⁵⁸
▲송영섭⁴⁸ ▲안호섭⁷¹ ▲오석환⁶¹
▲원상희⁸¹ ▲유 빈⁸⁴ ▲유언호⁶⁰
▲유영철⁸¹ ▲유장렬⁷⁵ ▲유현원⁶²
▲윤석주⁷⁹ ▲윤종구⁵⁹ ▲이경훈⁹⁰
▲이동환⁷³ ▲이병훈⁸² ▲이성선⁵⁰
▲이은식⁸¹ ▲이재서⁸⁶ ▲이정수⁸⁰
▲이진학⁷² ▲이철현⁷³ ▲이춘호⁸¹
▲임경직⁸⁹ ▲임창제⁴⁵ ▲전해원⁹⁰
▲정규철⁵⁵ ▲정규철⁶⁷ ▲정영화⁸¹
▲정운현⁴⁹ ▲정응남⁵⁸ ▲정재면⁸⁹
▲조성도⁷⁹ ▲차 한⁸² ▲최기은⁸³
▲최성영⁷⁷ ▲최성준⁷⁸ ▲최택규⁵⁰
▲한갑수⁵⁵ ▲홍순관⁸⁴

◇齒科大學

▲권기홍⁸⁴ ▲김기석⁷⁴ ▲김수경⁶³
▲김신복⁶⁵ ▲김일영⁸⁵ ▲김장연⁸¹
▲김주관⁷² ▲김중수⁷² ▲김진수⁶¹
▲김진수⁷⁶ ▲남태우⁸⁴ ▲문영환⁵³
▲문홍범⁸⁷ ▲박영진⁸³ ▲박정봉⁶⁶
▲박준범⁸³ ▲백박삼⁶⁹ ▲설동진⁶⁶
▲설창환⁷³ ▲손영화⁶⁹ ▲신 현⁷²
▲신지연⁹⁴ ▲안 박⁶⁶ ▲안경민⁸³
▲안복훈⁸⁶ ▲오복훈⁸⁸ ▲윤태희⁸⁵
▲이동찬⁸⁵ ▲이상신⁵⁶ ▲이장규⁵⁹
▲이재은⁷⁸ ▲이재철⁷⁷ ▲이중희⁶⁷
▲이충국⁷¹ ▲이형구⁸⁸ ▲임달수⁵⁸
▲장세원⁸⁷ ▲정형태⁸⁰ ▲조효선⁷⁶
▲주영숙⁵⁹ ▲주영숙⁵⁹ ▲채희종⁵⁹
▲최운침⁸⁸ ▲최종건⁸¹ ▲최종호⁷⁴

◇大學院

▲김대용⁹⁶ ▲김재정⁸⁵ ▲김관구⁹⁰
▲박 훈⁶¹ ▲박계영⁶⁸ ▲배명진⁸³
▲백승훈⁹⁵ ▲성기수⁵⁸ ▲소영일⁸¹
▲심영택⁸⁹ ▲윤석준⁹³ ▲이창배⁸⁴
▲이호진⁸⁷ ▲임재원⁸⁷ ▲장병수⁹⁶
▲장상용⁶⁵ ▲장승재⁶⁵ ▲정목동⁸³
▲정한기⁹⁴ ▲조관형⁸⁸ ▲채의업⁶²
▲최재남⁸³ ▲한찬욱⁸⁷

◇經營大學院

▲신종호⁸⁸ ▲안종훈⁷¹ ▲유성식⁹¹
▲장대길⁶⁹

◇教育大學院

▲오영태⁷² ▲이성규⁷³ ▲최홍규⁶⁸

◇保健大學院

▲김숙자⁸⁴ ▲김정수⁸¹ ▲안상선⁸⁰
▲전석락⁶⁹ ▲홍숙현⁷⁵ ▲황석천⁸²

◇司法大學院

▲김차희⁶⁹ ▲남용희⁶⁴

◇新聞大學院

▲최성봉⁷³ ▲최영일⁷⁵

◇行政大學院

▲공천오⁶⁹ ▲김원영⁷⁰ ▲이병길⁸⁵
▲이승렬⁷³ ▲이용만⁶⁶ ▲조병세⁸⁸

◇環境大學院

▲김희래⁷⁴ ▲박창권⁸⁸ ▲유동주⁷⁶
▲이강건⁷⁸ ▲이상곤⁹² ▲이재근⁸¹

▲정인동⁸³ ▲조근형⁸¹ ▲진광성⁹⁴
▲진교남⁸³ ▲한효덕⁸³

◇최고경영자과정

▲고시묵⁸ ▲고정웅⁴⁰ ▲구자홍⁴²
▲권오철⁴¹ ▲김건치⁴² ▲김세겸⁴³
▲김소식⁸ ▲김승곤³⁴ ▲김승무²
▲김재성¹⁹ ▲김주성³⁰ ▲김진표¹⁶
▲김향신⁴² ▲민상기²⁵ ▲박갑용²⁷
▲박부일³⁹ ▲박세환³⁹ ▲박용진³⁷
▲박은숙⁴¹ ▲박창규¹⁴ ▲백종만³⁹
▲변자섭¹⁴ ▲성영창²⁶ ▲성하룡³²
▲손수달³⁷ ▲송운한⁴¹ ▲송철호³⁷
▲신동원⁴⁴ ▲신재성⁶ ▲양종태⁴¹
▲오동빈²² ▲원성중¹² ▲유진석³²
▲이규범¹¹ ▲이기상²⁰ ▲이길우¹⁵
▲이부식²² ▲이상택⁴⁰ ▲이성연⁴
▲이용덕⁸⁸ ▲이원길²⁶ ▲이은수¹⁵
▲이종대² ▲이종철¹⁰ ▲이종효²⁷
▲임도수²⁰ ▲장석린³⁴ ▲조남준⁴³
▲주영연⁹ ▲진성섭¹⁰ ▲진중배³³
▲진희구³⁴ ▲최정현⁵ ▲황길홍²⁹

◇최고산업전략과정

▲김 청⁹ ▲김세종⁴ ▲김원주³
▲김주곤³ ▲김진성¹⁴ ▲김태욱⁷
▲박종일¹⁰ ▲박종현⁷ ▲박형국¹²
▲서병국¹⁹ ▲신강열⁹ ▲유환덕⁵
▲이상호⁸ ▲이은택⁶ ▲이주연¹⁹
▲정원용¹⁵ ▲조홍구¹⁸ ▲채수익¹⁵
▲홍준민⁶

◇국가정책과정

▲강영석³⁸ ▲김병철⁴⁵ ▲김봉섭³⁰
▲김용철⁴² ▲김장곤³⁷ ▲김종민⁴⁵
▲김진기⁷ ▲반승일¹³ ▲신현대³¹
▲윤대식¹⁰ ▲전영진³⁴ ▲정용남²⁴
▲조가운⁴⁴ ▲조강호³⁷ ▲조병창¹¹
▲조사홍³¹ ▲조홍규²⁶ ▲최상호⁴¹
▲최익한⁵ ▲최재승³⁸ ▲최재욱³⁶

◇고급금융과정

▲구경환⁵ ▲권철부⁴ ▲김종갑⁷
▲박영모⁶ ▲박종한⁸ ▲배상우⁹
▲이경균¹¹ ▲정철수¹¹ ▲조동희¹¹
▲홍우표³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권영길² ▲김윤기² ▲박봉조¹
▲박영준² ▲신종화¹ ▲최용삼³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준국³ ▲유금종³ ▲이수영⁴
▲이용일³ ▲이익진² ▲이현정³
▲조성태²

◇가정간호수습과정

▲여순이⁵ ▲이상애³ ▲장세선⁵
▲허정희⁵ ▲홍성숙⁵

지 부

◇삼부토건

▲강윤식 ▲김진영 ▲조항구
▲홍석곤

◇대한생명보험

▲나광섭 ▲박화섭 ▲오종발
▲유형근 ▲이병조 ▲이현철
▲정언택 ▲조용락 ▲조이수
▲조주현

월 계: 54,340,000
누 계: 574,017,620

「관악홀 의사 실명제」에 적극 동참을!

본회는 지난 95년 9월부터 동창회관 관악홀을 보다 나은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 동문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출연받아 고급 의자를 제작, 의사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사 실명제」를 실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3백석의 의자가운데 2백89석은 동문 여러분의 성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대 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11석의 의자를 제작하는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출연자 명단 (가나다순)

△노덕삼(경성의전) △강대순(중등교육 양성과정)
△康潤杰(57년 工大卒) △朴淳泰(62년 商大卒)
△韓東珠(74년 美大卒) △申彦日(77년 齒大卒)
△朴仁鈞(79년 工大卒) △呂寅喆(79년 工大卒)
△李銓午(81년 法大卒) △崔鍾云(83년 醫大卒)
△盧炳秀(87년 法大卒) △金澈鎮(88년 工大卒)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 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02)702-2233

“동창회 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98년 12월 1일~12월 31일〉

법 인

◇한컴전자(주) 박명식(63년 商大卒)=1좌
◇(주)연승산업 부창렬(81년 工大卒)=1좌

개 인

◇人文大學

▲양광용⁹²

◇社會科學大學

▲기영석⁸⁸

◇家政大學

▲김수미⁸³

◇看護大學

▲김정렬⁹⁶

◇工科大學

▲김 용⁶⁸ ▲우승태⁸³

◇農科大學

▲구자욱⁷¹

◇文理科大學

▲양 원⁶⁰ ▲한태길⁷³

◇法科大學

▲정성문⁸⁷ ▲진흥기⁸³

◇師範大學

▲곽정구⁷⁴ ▲박형석⁹⁷ ▲엄유선⁸⁸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명오¹